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궁궐 창살문양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규 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호 정

2003년 2월

조선시대 궁궐 창살문양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규 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호 정

2003년 2월

# 김호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교수\_\_\_\_\_ (인)

\*부심교수\_\_\_\_\_ (인)

\*부심교수\_\_\_\_\_ (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년 2월

## 국 문 초 록

한국의 古建築에서 창호는 정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모양 또한 다양하다.

창호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과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으로 나누어지며 건축의 장식적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까지 사용되어 왔다. 창살은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들어가는 창과 문의 총칭으로 창호의 울거미에 살을 짜 넣은 것을 말한다.

창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 이후이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 이후이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사상과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전통적인 지리 관에 의해 건축물들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궁궐건축도 크게 발전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건축이 발전함에 따라 창살문양도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4대 궁궐의 창살 문양은 화려하면서 위엄이 있어 보이는 솟을빛꽃살을 궁의 중심인 정전에 주로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전각에서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정자살과 띠살, 빗살이 사용되었다. 직선의 느낌은 딱딱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가벼운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궁’의 위계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졌다. 또한 궁궐은 일반 주택보다 매우 큰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용도로 전면에 큰 창호들이 설치되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동시에 조형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은 지형적 특색을 살려 건축된다. 부드러운 곡선을 띤 한국의 산의 모습을 건축물에 이용하기도 하며 창덕궁의 후원과 같이 자연 지세에 따라 건물을 짓는 방법이 나타난다. 또한 창호의 ‘들어열개’를 사용하여 자연과 연속성을 가지게 되어 자연과 집이 하나가 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서양의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자연과 융합할 수 있는 한국 건축의 가장 큰 요소라 할 수 있다.

창을 통해 들어온 빛에 의해 생긴 창살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그 자체로서 훌륭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창호지를 통해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방안에서의 창살의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조형적 특징이라 하겠다.

창은 선들의 짜임에 있어 일정한 비례를 두고 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일감과 조화를 이루며, 이는 비례미를 만들어 낸다. 전체적으로는 창호들 간의 비례와 작게는 창살간의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창살문양은 건물에서 느껴지는 육중함과 단조로운 느낌을 다양한 창살문양을 넣어 다소 무거워 보이는 것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亞字살과 卍字살은 단순문양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다양한 주제를 연결시켜 무수한 아름다운 문양을 보여주는데 이는 창살의 장식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통 창살문양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식하여 건축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그 의의가 있다.

# 목 차

## 국문초록

### 1. 서론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 2. 창살문양에 관한 사적 고찰과 의미

- 1) 창살문양의 역사 ..... 4
  - (1) 고려시대 이전의 창살문양 ..... 4
  - (2) 조선시대의 창살문양 ..... 7
- 2) 창살문양의 의미 ..... 7
  - (1) 창살문양의 기능과 형태에 따른 의미 분석 ..... 10
  - (2) 창살문양의 문화적 의미 분석 ..... 23

### 3. 조선궁궐과 창살문양의 유형 분석

- 1) 조선궁궐의 창살문양 ..... 30
  - (1) 경복궁 ..... 31
  - (2) 창덕궁 ..... 38
  - (3) 덕수궁 ..... 45
  - (4) 창경궁 ..... 49
- 2) 조선궁궐 창살문양의 유형 분석 ..... 54

<b>4. 조선궁궐 창살문양의 조형미 분석 및 특징</b>	
1) 창살문양의 조형적 특징 .....	58
(1) 선과 형 .....	58
(2) 빛과 규모 .....	61
(3) 통일과 균형 .....	65
2) 창살문양의 조형미 분석 .....	67
(1) 자연미 .....	67
(2) 장식미 .....	72
(3) 비례미 .....	74
<b>5. 결론</b> .....	78
(1) 조선조 창살문양 연구 종합 .....	78
(2) 현대적 의의 .....	79
<b>참고문헌</b> .....	81
<b>참고도판</b> .....	85
<b>ABSTRACT</b> .....	96

## 표 목 차

<표-1> 경북궁 창살문양의 종류 .....	37
<표-2> 창덕궁 창살문양의 종류 .....	45
<표-3> 덕수궁 창살문양의 종류 .....	49
<표-4> 창경궁 창살문양의 종류 .....	53
<표-5> 각 궁궐에 나타난 창살문양 .....	55
<표-6> 각 궁궐에 전각에 나타난 창살문양 .....	56
<표-7> 각 궁궐의 당과 정에 나타난 창살문양 .....	57

## 도 판 목 록

〈도판-1〉	안성동 대충 누각도 .....	5
〈도판-2〉	백제 동탑 .....	5
〈도판-3〉	관장문, 골관문 맹장지, 도듬문 .....	12
〈도판-4〉	불발기 .....	12
〈도판-5〉	살창箭窓 .....	13
〈도판-6〉	교창交窓 .....	13
〈도판-7〉	띠살창細箭窓, 용자창用字窓 .....	15
〈도판-8〉	아자창亞字窓 .....	15
〈도판-9〉	완자창卍字窓 .....	15
〈도판-10〉	정자살井字箭, 솟대살창 .....	15
〈도판-11〉	빗살창 .....	16
〈도판-12〉	소슬꽃살, 빗꽃살 .....	16
〈도판-13〉	귀자창貴字窓 .....	17
〈도판-14〉	귀갑창龜甲窓 .....	17
〈도판-15〉	연환문양 .....	19
〈도판-16〉	쌍계사 대응전 꽃살 .....	85
〈도판-17〉	「景福宮 勤政殿」 솟을빗꽃살, 국보223호, 태조4년 1395년 창건…	85
〈도판-18〉	「景福宮 思政殿」 띠살細箭, 고종4년 1867년 조성 .....	85
〈도판-19〉	「景福宮 萬春殿」 띠살細箭, 고종3년 1866년 조성, 1988년 복원	85
〈도판-20〉	「景福宮 千秋殿」 띠살細箭, 고종2년 1865년 조성 .....	85
〈도판-21〉	「景福宮 康寧殿」 아자살亞字箭, 고종2년 1865년 중건, 1996년 복원 .....	86
〈도판-22〉	「景福宮 康寧殿」 띠살細箭 .....	86
〈도판-23〉	「景福宮 交泰殿」 띠살細箭, 고종2년 1865년 중건 1996년 복원	86
〈도판-24〉	「景福宮 交泰殿」 아자살亞字箭 .....	86
〈도판-25〉	「景福宮 欽敬閣」 띠살細箭 .....	86
〈도판-26〉	「景福宮 慈慶殿」 띠살細箭, 보물809호, 고종2년 1865년 조성, 고종25년 1888년 중건 .....	86

<도판-27>	「景福宮 慶會樓」	전경, 국보224호, 태종12년 1412년 창건, 고종4년 1867 중건	87
<도판-28>	「景福宮 慶會樓」	완자살교창卍字箭 교창交窓	87
<도판-29>	「景福宮 香遠亭」	亞字箭, 고종4년~10년 추정, 1953년 복원	87
<도판-30>	「昌德宮 仁政殿」	숫을 빗꽃살, 국보225호, 태종5년 1405년 창건, 순조4년 1804년 중건	87
<도판-31>	「昌德宮 宣政殿」	띠살細箭, 세조7년 1461년 창건 개칭, 인조25년 1647년 중건	87
<도판-32>	「昌德宮 熙政堂」	완자살卍字箭, 보물815호, 연산군2년 1496년 개 칭, 1920년 복원	87
<도판-33>	「昌德宮 熙政堂」	완자살교창卍字箭 교창交窓	88
<도판-34>	「昌德宮 大造殿」	완자살卍字箭, 보물816호, 1920년 중건	88
<도판-35>	「昌德宮 大造殿」	완자살교창卍字箭 교창交窓	88
<도판-36>	「昌德宮 大造殿」	띠살細箭	88
<도판-37>	「昌德宮 芙蓉亭」	빗살, 숙종33년 1707년 창건, 정조연간 중건	88
<도판-38>	「昌德宮 芙蓉亭」	띠살細箭	88
<도판-39>	「昌德宮 宙合樓」	전경, 정조 즉위년 1776년	89
<도판-40>	「昌德宮 映花堂」	완자살卍字箭 불발기, 숙종18년 1692년	89
<도판-41>	「昌德宮 演慶堂」	완자살卍字箭, 순조28년 1828년	89
<도판-42>	「昌德宮 演慶堂」	정자살井字箭	89
<도판-43>	「昌德宮 演慶堂」	빗살 불발기	89
<도판-44>	「昌德宮 樂善齋」	정자살井字箭 변형, 헌종13년 1847년 창건, 1996년 복원	90
<도판-45>	「昌德宮 樂善齋」	완자살卍字箭 변형	90
<도판-46>	「昌德宮 樂善齋」	완자살卍字箭 변형	90
<도판-47>	「昌德宮 樂善齋」	완자살卍字箭 변형	90
<도판-48>	「昌德宮 樂善齋」	완자살卍字箭 변형	90
<도판-49>	「昌德宮 惜福軒」	완자살卍字箭	90
<도판-50>	「昌德宮 惜福軒」	완자살卍字箭	90
<도판-51>	「德壽宮 中和殿」	숫을빗꽃살, 보물819호, 대일제국 광무6년 1902년	

	창건 .....	91
<도판-52>	「德壽宮 咸寧殿」 정자살井字箭, 보물820호, 대한제국 광무1년 1897년 창건 .....	91
<도판-53>	「德壽宮 咸寧殿」 띠살細箭 .....	91
<도판-54>	「德壽宮 德弘殿」 띠살細箭, 1906년 창건, 1911년 개조 .....	91
<도판-55>	「德壽宮 昔御堂」 띠살細箭, 1904년 조성 .....	91
<도판-56>	「德壽宮 昔御堂」 정자살井字箭 .....	91
<도판-57>	「德壽宮 卽祚堂」 정자살井字箭, 1904년 조성 .....	92
<도판-58>	「德壽宮 卽祚堂」 띠살細箭 .....	92
<도판-59>	「德壽宮 靜觀軒」 전경, 1900년 창건 .....	92
<도판-60>	「德壽宮 靜觀軒」 난간 .....	92
<도판-61>	「德壽宮 靜觀軒」 기둥 .....	92
<도판-62>	「德壽宮 石造殿」 전경, 1909년 창건 .....	92
<도판-63>	「昌慶宮 明政殿」 솟을빋꽃살, 국보 226호, 성종14년 1483년 창건, 광해군 8년 1616년 중건 .....	93
<도판-64>	「昌慶宮 明政殿」 빋살 교창交窓 .....	93
<도판-65>	「昌慶宮 文政殿」 정자살井字箭, 1986년 창건 .....	93
<도판-66>	「昌慶宮 崇文堂」 정자살井字箭 .....	93
<도판-67>	「昌慶宮 崇文堂」 띠살細箭 .....	93
<도판-68>	「昌慶宮 歡慶殿」 정자살井字箭, 성종15년 1484년 창건, 1834년 복 원 .....	94
<도판-69>	「昌慶宮 歡慶殿」 정자살 교창井字箭 교창交窓 .....	94
<도판-70>	「昌慶宮 景春殿」 띠살細箭, 성종14년 1483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중건 .....	94
<도판-71>	「昌慶宮 景春殿」 띠살細箭 .....	94
<도판-72>	「昌慶宮 養和堂」 띠살細箭, 성종15년 1484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중건 .....	94
<도판-73>	「昌慶宮 通明殿」 정자살井字箭 불발기, 보물818호, 성종15년 1484 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중건 .....	94
<도판-74>	「昌慶宮 通明殿」 띠살細箭 .....	95

<도판-75>	「德壽宮 昔御堂」 전경, 1904년 조성 .....	95
<도판-76>	「昌慶宮 歡慶殿」 전경, 성종15년 1484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복원 .....	95
<도판-77>	안성 청룡사 대응전 .....	95
<도판-78>	공주 갑사 대응전 기단 .....	95

# 1. 서론

## 1) 연구 목적

건축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문화, 사상, 인생관에 이르는 모든 것을 표현하며 반영한다. 또한 쾌적한 환경과 미적 요소도 그 시대의 건축문화를 특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수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변화 되어온 전통 문화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서민 주택과 궁궐, 사찰의 창살 문양에 대한 미적 가치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귀족문화라 할 수 있는 궁궐을 중심으로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의 다양한 창살문양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아름다운 조형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궁궐창살 문양에서 조형적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창살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통하여 현재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서구식 건축물과 서구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서양의 건축 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 창호가 사라져 가고 전통적인 창살문양을 만드는 장인의 계승에 있어서도 맥이 끊어지고 있다. 또한 창살문양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서양식 건축방식에 전통창살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창살문양의 연구는 우리 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창살문양에서 조형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구 디자인과 장신구 디자인, 건축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창살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 창살문양을 현대감각에 맞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보여진다. 예술분야에서는 아직 창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전통 창살문양의 조형

미를 연구하여 예술분야에서도 우리의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상 대대로 의미를 부여받고 전승되어진 전통 창살문양의 역할과 건축분야에서의 조형적 가치를 발견하고 예술분야에서의 전통적 조형미를 연구하여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한국 창살의 독자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창窓’을 통해 표현된 창살무늬를 한국 전통 문화의 재발견의 계기로 삼고 우리 창살의 독자적 가치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한국건축에 창살문양은 대부분의 목조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크게 일반 민가형 주택과 궁궐, 사찰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민가주택과 사찰의 창살문양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궁궐의 창살문양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경복궁과 한국적 특색이 뚜렷한 창덕궁이 많이 연구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궁을 중심으로 창살문양을 연구하고자 한다.

타 분야에서의 창살문양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장신구연구와 가구, 스카프 등의 디자인분야는 이미 창살문양의 연구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며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예술 분야에서 또한 한국적 조형미를 예술미와 접목을 시켜 우리의 것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살문양의 역사와 의미는 기존 논문과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창살에 관한 초기 기록은 구하기 어려워 주남철 교수의 문헌과 그외 다수의 문헌과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조선시대에 관한 기록과 건물은 현재 존재하기도 하며 많은 문헌과 활발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창살문양의 형태와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일반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한국의 궁궐 창살문양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 조사에 있어서 현존하는 궁궐은 대부분 창건 당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수 차례의 전쟁과 화재로 재차 중건된 모습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본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우리의 것을 말살하기 위해 궁궐 건축은 왜곡되거나 변형되어졌으며 강제로 철거 된 전각도 많았다.

궁궐 창살문양연구에 있어서 시기는 건물이 중건된 마지막 시기인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창살의 의미와 창살무늬의 사실적 묘사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조선궁궐로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선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접해있으며 문헌과 조형건축물이 가장 잘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궁궐로 제한한 이유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왕이고, 그 왕이 머물던 궁궐은 그 시기의 최고의 기술과 재정을 동원하여 최고의 기술자가 조성한 한 시대의 최고의 건축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보다 더 많은 채와 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와 간에서 보여지는 여러 종류의 창살 문양을 연구 할 수 있어 사찰과 일반주택을 제외한 궁궐건축의 창살문양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방법들을 서술한 서론부분으로 중요한 의미와 용어를 미리 제시하였고, 제2장은 역사적인 고찰로 통해 크게 고려시대 이전의 시기와 조선시대로 나누어 창살 문양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궁궐 창살문양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영향을 받은 창살 문양을 민속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제3장은 실질적인 현장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을 중심으로 궁궐에서 나타나는 창살 문양의 유형과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제4장은 앞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창살문양을 이루는 조형적 특징을 자연미와 장식미, 비례미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 2. 창살 문양에 관한 사적 고찰과 의미

### 1) 창살 문양의 역사

#### (1) 고려시대 이전의 창살문양

창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 다음에 형성된 성읍국가, 고조선이나, 부여, 예맥,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등에서 성과 궁궐을 짓기 시작하면서 문과 창이 나타났다. 창살은 고대에는 벽에 구멍을 뚫어 나뭇가지를 세로로 세워 꽂아 두어 생겨난 것이 창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이 발달하면서 빛과 통풍을 위한 구멍에서 장식의 효과와 용도에 따라 변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계승되고 완성되었다고 본다.

창의 역할은 자연재해와 동물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역할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양 또한 변하게 되었다.

성읍국가 시대의 문과 창에 관한 자료로는 중국사서의 기록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문과 창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 추정된다. 이 기록을 통해 호를 외쪽 지게문으로 보고 움집 상부에 출입문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호를 창의 잘못된 기록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움집의 바닥이 낮아지고 벽체의 일부가 지상에 만들어진 이른바 반수혈 주거의 벽면에 문이 설치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집을 드나들기 위한 호, 즉 외쪽 지게문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sup>1)</sup>

위의 기록 이외에도 가야 시대의 집모양 토기가 출토되어 당시의 문과 창호의 모습을 알게 해준다. 집모양 토기의 전면에는 중앙에 두 짝의 문짝이 있고, 이 문짝 좌우에는 나뭇가지를 세로로 끼워 꽂아 넣은 듯한 살창이 있다. 이것은 지게문이 아닌 양쪽으로 여닫는 문과,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창이 분리되어 사

1) 윤장섭 저 《우리 옛집 이야기》 p.30. 우일문화사. 1983. 서울

용되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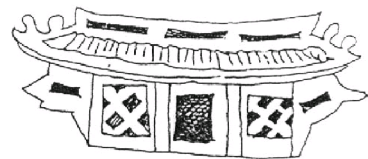
삼국시대에 들어서 불교문화가 전래되고, 중국 대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건축 또한 점차 원시적인 문화의 단계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문화국가로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구려 시대에는 문과 창호는 알 수 없지만 안악 3호분과 마선구 고분 벽화에 나타난 그림으로 문과 창이 존재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안성동 대총의 남벽 「누각도」 <도판 1>에서 보면 맞배 지붕으로 된 주택에 높이 솟은 누각의 좌측에 조그만 사각형의 창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창의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 한다.<sup>2)</sup>

백제의 문과 창호에 대한 자료로 실제적인 유구는 전하는 것이 없으나, 백제 초기의 서울 몽촌토성과 공주 공산성에서 성문의 존재가 입증되었다. 또한 국립 부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 동탑편 <도판 2>사면의 중앙에는 문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있고, 창의 형태로 보이는 빗살창호가 있으며 분황사 모전 석탑1층에 문을 여닫던 흔적과 집모양 토기에서는 문과 창의 형태가 나타났다. 전들에 그려진 「전각도」에 살창이, 문짝 위에는 교창이 표현되었고 궁궐과 사찰 전각에도 문과 살창, 교창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1> 안성동 대총 누각도



<도판 2> 백제 동탑편

국립 부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 동탑편 사면의 중앙에는 문으로 추정

2) 김정기 저 《한국 목조 건축》 p.90. 일지사. 1982. 서울

되는 방형의 구멍이 있고, 이의 좌우에는 빗살로 구성된 방형의 창호인 빗살창호가 있어 백제의 창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신라 시대의 문과 창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와 탈해이사금에서 기록된 것으로 도성이나 산성들 그리고 궁궐 등에 남문과 북문, 동문과 서문 등 여러 문과 창호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전돌의 면에 그려진 「전각도」를 보면 팔작 집의 정면을 크게 삼분하여 중앙에는 두 짝의 문짝이, 좌우에는 살창이 그리고 문짝 위에는 교창이 표현되어 있는데, 궁궐을 비롯한 사찰 전각 모두에서 문짝과 살창, 교창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고려의 궁궐로는 ‘만월대’가 있는데 현재에는 터만 남아 있을 뿐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고려 시대의 궁과 사찰의 창호는 삼국 시대의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창호가 나타난 건축으로는 한국에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창살문양은 궁궐건축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찰에서만 창호를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찰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봉정사 극락전은 띠살창호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현재 복원된 극락전은 두 짝 판 문을 달고 좌우로 살창을 설치하였다. 이는 완전 해체 복원할 때, 해체 수리 전의 전면 띠살창호들을 제거하고 원형을 찾아 복원한 것이다. 극락전 동측면에는 창호가 없었으나 서측면 오른쪽 협간에는 외쪽 빗살창호 박여단이, 왼쪽 정자에는 살창이 설치되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중앙과 두 측간 모두 정자살 창호로 되어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정면 모두 빗살 창호로 설치되어 있고 양측 면에는 교살 창호로 되어 있다. 위에서 고찰한 결과 고려시대에 창살문양은 띠살창과 빗살, 정자살 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

3) 김정목 <창살문양을 이용한 장식장 연구> pp.4~5.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2) 조선시대의 창살문양

조선의 도시적 특징은 유교적인 예의 개념에 입각한 이상적 도성 관과 풍수설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지리 관이 깔려 있었다. 또한 불교가 정신적 배경이어서 사찰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유교를 선택한 조선은 궁궐중심의 건축이 발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sup>

이러한 전통적인 지리 관과 유교적인 특징으로 건축된 궁궐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5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그 외 사원, 사찰 등 문화재가 많이 현존하고 있다.

조선으로 넘어 오면서 많은 건축물이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또한 창살 문양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대의 창살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된 용자살, 띠살, 아자살, 완자살등 단순하고 직선적인 것이 있으며 궁궐에서 사용된 정자살, 빗살 등의 정교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창살, 사원이나 사찰 등에 주로 나타나는 꽃살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창살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형태가 많아서 연구자료로 많이 쓰이며,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 무늬에서 화려하고 섬세한 꽃살무늬까지 이어지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창살문양은 3장에서 자세히 연구 하고자 한다.

## 2) 창살문양의 의미

한국의 건축은 다른 나라 건축에 있어서보다 창 의 의미가 크며 건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하겠다. 창 의 비중을 크게 둔 까닭은 첫째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빛과 공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빛과 공기는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창이라는 건축의 기본 구성 요소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

4) 박지연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창살 비교 분석 연구> p.9.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되었다. 두 번째로 건물에 있어서 전면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창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건물의 얼굴’이라 하며 그 건물을 특징지어 준다. 따라서 창을 이루는 살의 문양은 그것이 장식되고 있는 집에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창문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창살의 형태는 그 집의 분위기를 이루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또 창살의 다양한 무늬는 건축의 외형의 장식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좋은 뜻이 담겨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복을 기원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화를 면하기 위한 상징과 같이 쓰여졌다.<sup>5)</sup>

창은 곧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가치를 부여한다고 본다. 창은 기능성과 장식성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문화의 의미를 지니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창은 주로 窓戶라 불려지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에 사람과 물품이 드나들기 위해 만든 것을 문門이라고 하고, 건물 내부의 채광과 통풍의 기능을 하는 것을 주로 창窓이다.<sup>6)</sup> 하지만 한국의 건축에서 창은 서양 건축의 창과 뚜렷이 구분된다. 서양은 창과 문의 구분이 확실하지만 한국의 창과 문은 뚜렷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창호와 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드는 목수의 종류에 따라 구별한다고 한다. 여기서 목수의 종류란 집의 큰 골격을 짓고 문이라 칭하는 것을 만드는 대목과 가구나 창호를 짜는 일과 같이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소목으로 나눌 수 있다.<sup>7)</sup> 그렇기 때문에 소목과 대목이 무엇을 만들었나에 따라 문과 창호로 구분 지어 질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 창과 문의 의미는 중요하다. 우선 내부 공간으로 이루어진 바닥과 벽체, 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공간과 구별된다.

---

5) 김미영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연구> p.6.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6) 장기인 저 《한국 건축 대계 I : 창호》 p.9. 보성각. 2000. 서울

7) 주남철 저 《한국의 문과 창호》 pp.10~11에서 참조. 대원사. 2001. 서울

이와 같은 외부와 내부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창호이다. 창호의 틀에 살을 짜 넣은 것을 창살이라고 한다.

집이란 의미는 자연현상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함으로 장마나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동물과 위협한 것에서 보호를 받기 위함도 있다. 이러한 집의 기능에서 창호의 역할은 여담음에 있어서 편리해야 하며, 단단히 잠글 수 있는 문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호는 집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배치, 크기 모양이나 형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의 역할뿐만 아니라 창호는 살의 짜임에서 보여지는 반복과 변화에서 오는 율동성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단순함과 지루함을 없애주기도 한다. 즉 빛을 통해 그림자로 생기는 창살문양은 그 그림자가 방안에 드리워 지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연출한다. 건축으로서 창뿐만 아니라 마음의 창 의 역할을 하면서 건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며 미술적인 가치도 돋보이게 한다

창살은 단순한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문화적 의미, 생활의 모습,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창살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양으로서의 건축학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생활상의 정서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우리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의미와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내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문양의 의미를 장식설로 보는데 인간은 무엇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장식본능을 가졌고, 시대적,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질서와 새롭게 아름답게 꾸미려는 인간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빈 공간을 어떠한 형태로든 메우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혹은 의식적으로 물체를 빈 공간에 메꾸어 메꿈에 반복적인 행위에서 안도감과 질서를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해 오는 대상에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 형태를 사실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므로써 삶의 평안과 영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 (1) 창살문양의 기능과 형태에 따른 의미 분석

앞서 언급한 대로 창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창의 총칭으로 창살은 자연과 내부의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도 하며 창을 통해 방안에 빛을 받아들이고 방안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채광과 통풍의 기능도 한다.

한국의 창호는 창과 호가 명확하게 구별 안 되고 복합적인데 그 특성이 있다. 즉 창으로 설치하고 문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또 문의 성격이면서 창으로서의 기능, 즉 채광과 조망의 기능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이런 성격은 서양건축에서는 window와 door가 뚜렷이 구분되는데 window는 창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채광과 통풍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창호窓戶란 ‘窓’과 ‘戶’를 함께 쓰면서, ‘窓’은 ‘창window’이고 ‘戶’는 ‘지계문door’이다. 또한 방이나 대청등 각 채의 실내공간에 드나들기 위한 것은 ‘戶’이고, 마당에 있는 ‘대문’은 집을 드나들기 위한 ‘門’인 것이다. 그러나 창호는 분명 채광과 조망을 겸한 두 짝의 ‘窓’이면서도 앞쪽에 누마루가 설치될 때에는 ‘門’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窓戶’, ‘窓門’등으로 부르기도 한다.<sup>8)</sup>

이와 같이 서양과 달리 창과 문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창과 문을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전통 창살에는 기능과 형태에 따라 그 구성과 용도가 다르다. 창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틀에 살을 짜 넣은 것으로 그 자체를 면으로 형성하는 것과 살의 짜임에 따라 그리고 이들 둘을 혼용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지며 그 명칭도 또한 다양하다. 장기인이 분류한 창의 기능과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창호들을 창살의 문양의 기능에 의해 크게 3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 ① 호戶로서만 사용되는 것

#### 가. 판장문板長門

8) 주남철 저 《한국건축의장》 pp.82~84. 일지사. 1999. 서울

판장문은<도판 3> 몇 장의 두꺼운 널빤지에 띠를 대어 한 장처럼 붙여 만든 것으로 일반 주택의 부엌 출입문과 광문, 방의 덧문으로 사용된다.

#### 나. 골판문骨板門

골판문은<도판 3> 문 울 거미를 짠 후 그 사이에 비교적 얇은 널빤지들을 끼워서 만든 것으로, 단독으로 대청마루의 측면과 후면에 창호로 쓰이며 주택의 각 방 덧문과 고방문庫房門<sup>9)</sup>으로도 사용된다.

#### 다. 맹장지盲障子

맹장지는<sup>10)</sup><도판 3> 문 울거미에 두꺼운 종이를 안팎을 싸서 바른 문으로 일반 주택의 방과 방사이 방과 마루 사이에 사용된다. 상황에 따라 아자살, 완자살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방의 보온 효과를 위한 창으로 사용되었다.

#### 라. 도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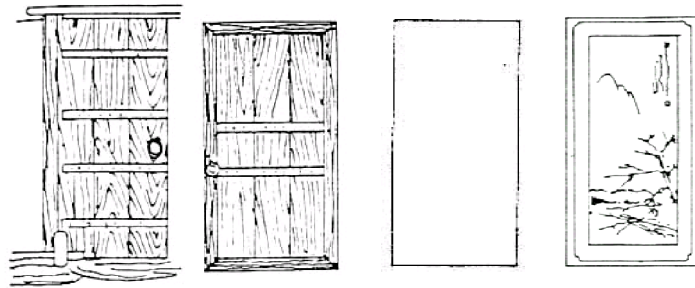
맹장지와 같은 용도의 문으로 <도판 3>에서처럼 울거미 부분만 돋보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주택의 다락문과 방의 안쪽에 설치하는 두꺼비집으로 또 두꺼비집 속에 설치하는 갑창甲窓<sup>11)</sup>으로 사용되어 졌다.

#### 마. 불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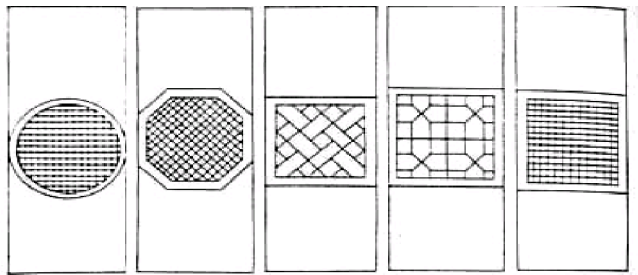
맹장지와 같은 문의 불발기는<도판 4> 중앙부에 직사각형, 팔각형 등의 울거미를 만들고 이 속에 교살, 정자살, 완자살 모양을 짜 넣은 문이다. 이는 중·상

- 
- 9) 살림집에서 살림살이나 그 밖의 온갖 물건을 넣어 두는 방을 일컫는다.  
10) 문짝이나 창호에서 빛을 차단시키기 위해 문 울거미에 두꺼운 종이를 안팎을 여러 겹으로 바른 문을 맹장지 문이라 한다. 안팎을 두껍게 발라서 벽체와 같은 질감이 나도록 했으며 대청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안방과 윗방 사이에 두는 문이다. 박영순 외 저 《우리옛집이야기》 pp.104~105. 열화당. 1998. 서울  
11) 갑창은 창문 안에 내부 덧문으로 쓰거나 다락, 벽장문에 쓰인다. 닫으면 광선과 바깥공기의 찬 기운이나, 소리들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창호로 전면에 종이를 두 겹씩 바르고 그 표면에 서화를 붙이고 둘레에 선을 돌려 한 쪽의 액자로 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다. 장기인 저 《한국건축대계 I:창호》 p.51. 보성각. 2000. 서울

류 주택의 대청과 방 사이에, 또 궁궐, 서원 등의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하며, 이문의 문짝들을 접어 들 쇠에 매달게 되어 있다.



<도판 3> 판장문, 골판문, 도듬문



<도판 4> 불발기

② 창窓으로만 사용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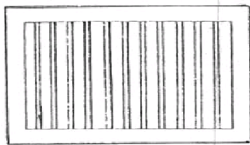
가. 살창

살창은<도판 5> 창 울거미를 짠 후 여러 개의 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방향으로 꽂아 만든 것이다. 이때 여기에 꽂는 살의 모양은 그림6에서처럼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창은 창호지를 붙이지 않아 빛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주로 환기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엌이나 곳간에 설치되었다. 민가형 주택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궁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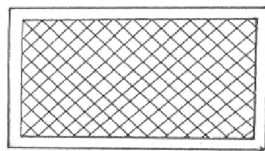
나. 교창交窓

일반 주택의 부엌 벽, 광의 벽에 높직이 설치하거나, 정면 분합문 상부, 또는

사찰, 왕궁의 정면 창호 상부에 가로로 설치하는 것으로 살 짜임을 보면 45도와 135도로 서로 교차됨을 볼 수 있다.<도판 6> 이 형태는 대개 장방형의 울거미를 짜고 여기에 교살, 아자살, 완자살, 정자살 등의 문양으로 살을 짜 넣는다. 교창은 통풍을 위한 창이며 동시에 궁궐에서는 완자살 교창을 사용하여 조형적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도판 5> 살 창



<도판 6> 교 창

### ③ 창窓과 호戶로 혼용되는 것

#### 가. 띠살창細箭窓과 띠살문細箭門

띠살은<도판 7> 수직으로 촘촘히 살들을 세우고 여기에 다시 창호의 위, 중간, 아래에 대개 가로살을 3개, 5개, 3개를 넣어 만든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창살로 주택, 궁궐, 사찰 등에서 덧문으로 사용한다.

#### 나. 용자창用字窓

살의 짜임에 있어 창호지의 면이 크고 시원하게 보이며 그 구성에서도 간결함을 볼 수 있다.<도판 7>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는 창 울거미에 중앙에 세로로 살대를 하나 세우고, 가로로 2개를 넣어 만드는 것이다. 방과 방사이나 미닫이창으로 사용된다. 용자창은 살과 살 사이가 넓어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에 효과적이며 선의 굵기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 다. 아자창亞字窓

아자창은<도판 8> 중앙에 커다란 “口”를 넣고, 4면에 각각의 숫대살을 붙여 그것을 상, 하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 구성이 아기자기 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의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궁궐에서는 교태전

泰殿, 대조전大造殿과 같은 왕비의 처소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라. 완자창卍字窓

형태상 살의 한 끝이 ㄱ형이 돌출하여 끝나는 부분으로 口字의 네귀를 다른 口변으로 각각 물려 놓은 양식이다.<sup>12)</sup> 상·하·중앙에 커다란 4각형 2개에 네 모서리에 가로 살과 세로 살이 사각에 물려 있는 모양이다. 완자살은<도판 9> 내전의 정전이나 대비전 또는 주변 건물에서도 격식이 높은 중요한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창호로 사용된다.

마. 정자살井字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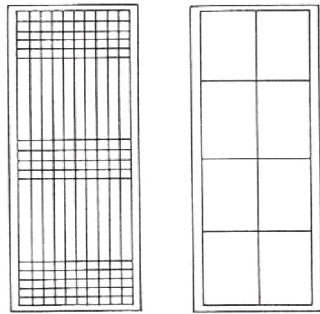
한자의 井자에서 온 것으로 가로살과 세로살이 일정한 간격으로 네모 반듯하게 교차되는 모양<도판 10>으로 이는 주택의 덧문이나 부엌의 높이 단 들창에 많이 쓰인다. 또한 궁궐의 정면창호와 교창으로 많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숫대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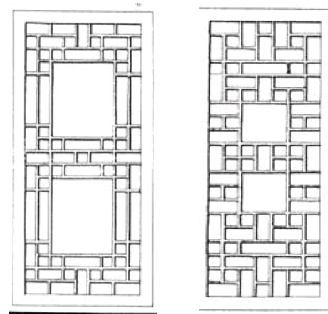
살을 가로 세로 산算가지 모양으로 배열된 것으로 하나의 살이 세로로 내려오면 바로 직교하여 가로 살을 만나는 구성을 하고 있다.<도판 10> 여기서 변형된 것이 범살이라 할 수 있는데 범살은 아자살, 숫대살 보다 너비는 크고 두께는 비교적 얇게 되어있다. 범살은 일반적으로 격식이 낮은 건물에 쓰이지만 간소하며 정원의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비칠 때 방안에서 보는 운치가 뛰어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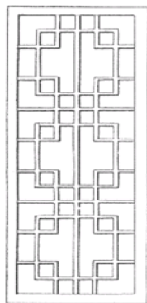
12) 박경혜 <이조창살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문집》 제17집. p.281. 이화여자대학교. 1989.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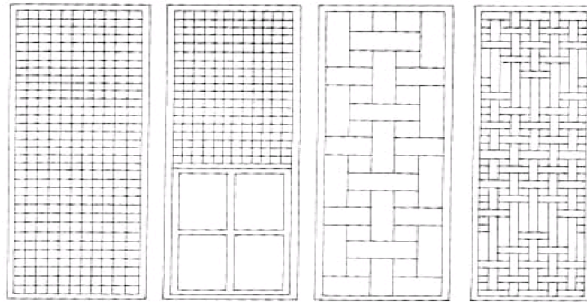
<도판 7> 띠살창, 용자창



<도판 8> 아자창



<도판 9> 완자창



<도판 10> 정자살, 솟대살

#### 사. 빗살창<도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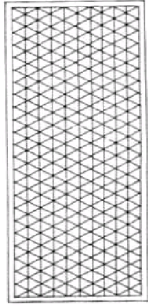
살이 45도의 사선과 135도의 사선으로 직교하여 비스듬히 구성되는 창살로 벽체 위에 높은 교창으로 사용되어져 통풍을 위한 창으로 사용되었다. 궁궐은 일반 주택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빛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창호 상부에 많은 빗살교창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 아. 소슬빗살<도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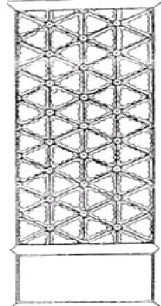
빗꽃살은 45° 각도로 살을 배치한 것으로 교살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면에 너비를 일정하게 등분하여 수평에서 30° 기울여 세로 살인 날살과 가로 살인 씨살, 그리고 빗살을 모두 넣어서 짙은 문을 말한다.<sup>13)</sup> 여기에 꽃새김을 하면

13) 장기인 저 《한국건축대계 I:창호》 pp.45~47. 보성각. 2000. 서울

소슬빛꽃살이 된다. 곧 소슬이란 ‘돋아낸, 돋우어진, 도드러진’의 뜻으로 그 무늬 살에는 거의가 꽃을 새기고 있어 가장 장엄한 문으로 보여진다.<sup>14)</sup> 궁궐의 정전에서만 발견되며 기본적인 소슬빛살에 꽃을 넣어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도판 11> 빗살



<도판 12> 소슬빛살, 소슬빛꽃살

#### 자. 귀자살 貴字窓

한자의 귀(貴)자를 살무늬로 구성한 것으로 주택의 불발기에 주로 사용되며 궁궐과 사찰의 창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도판 13>

#### 차. 귀갑창 龜甲窓

거북이의 잔등무늬를 본 따 만든 것으로 육각형으로 된 형태이다.<도판 14> 현재는 발견된 유구는 없지만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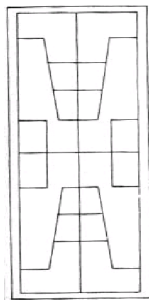
#### 카. 꽃살

빗살에 꽃무늬를 새긴 것이 아니라 꽃무늬를 통째로 새겨 만든 것으로 주로 사찰에서 화려한 색과 함께 정면 창호로 사용된다. 꽃새김을 하는 데는 장인의 기술이 필요한데 점차 그 맥이 끊어지고 있어 창살문양의 전승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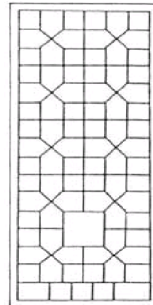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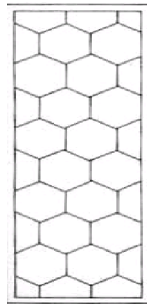
14) 신중찬 <교살 창호에 나타난 문살 문양 연구: 꽃살문을 중심으로> pp.10~11.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5) 박지연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창살 비교 분석 연구> p.17에서 재인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위에서 살펴본 창살문양은 대부분 가장 단순한 수직선과 수평선에 의해 만들어진 기하학적인 형태를 지닌 문양이다. 수평과 수직을 응용한 문양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차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결한 선이라 할 수 있다. 수직선은 수평선에 외적·내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수평선에 대해서 직각 상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차고 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수평선은 따뜻하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 사선은 수직선과 수평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준다.



<도판 13> 귀자창



<도판 14> 귀갑창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살문양이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된 이유는 대체로 문양의 발생이 자연 현상에 의한 발생이기도 하며 환경에 따르는 생활의 필요에 발생이기도 하며 주술적 의미나 종교에 의해 출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로 17세기말에 궁궐내에 온돌이 널리 확대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방안의 온기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며 밖의 찬 기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의 문과 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깥쪽에는 찬바람을 막는 쌍창이 설치되고 방과 방, 방과 대청 사이에는 장지문을 설치하여 겹겹으로 추위를 막으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창살 종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④ 문양의 의미 분석

문양은 건축 공예, 조각, 회화 등 모든 미술분야에 걸쳐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문양은 우리 문화중 건축의 조형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칫 단순해 보일 수 있는 건물에 선의 다양한 변화와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 훌륭한 장식 효과를 이루어 내며 이러한 문양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모습과 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미술활동이라 보여진다.

문양 표현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되풀이되는 그림으로써의 반복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문양은 순수 감상용 그림의 경우처럼 잘 그리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예술적 욕심 없이 소박한 생활욕구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형상의 틀을 존중하면서 만들어지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문양은 생활과 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이는 건축에서도 보여지며 생활도구인 청자나 백자, 가구, 보자기 등 모든 것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양들 중에 건축에서 보여지는 문양으로 창살문양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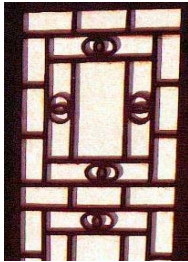
창호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창살문양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며 형태에 따라 각각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창살문양의 형태에 따라 지니고 있는 의미와 단순한 장식으로서의 문양이 아닌 그 속에 내재되어 포함되어 있는 뜻들을 알아보았다.

#### 가. 연환문양

창덕궁 낙선재 상량정의 연환문양은 동그라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아홉 개의 원을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한 문양으로 좋은 일이 계속 이뤄진다는 의미로 최대한 길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7)</sup> 기본적인 아자살 문양에 원의 고리가 장식성을 띤 문양으로 표현되어졌다.<도판 15>

---

16) 차용준 저 《전통문화의 이해-제3권》 pp.386~389에서 참조.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전주



<도판 15>

#### 나. 완자卍字문양

완자살은 일만 만 자의 옛 글자이고 중국 음으로 萬이라 하는데서 연유된 것<sup>18)</sup>으로 형태에서 나타나는 선들은 단순한 직선과 수평선의 교차로 된 것이 아니라 선들이 짜여지거나 살의 한 부분이 ㄱ형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자살은 자체 내에서 크고 작은 획이 율동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어 그 변화가 다양하다.

십자형을 기본으로 하는 卍은 동·서·남·북의 상징에 오른쪽으로 도는 운동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십자형의 네 가지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구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옮겨가는 태양의 궤적에 따라 공간이 분할된다는 사실이다. 이 문양은 문양 끝이 사방으로 무한히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단만수자團萬壽字 또는 만수금萬壽錦등으로 불려졌다.<sup>19)</sup>

당나라 측진무후 장수長壽 2년(693)에 불교의 길상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卍문양의 글자를 만들어 정식 문자로 채택하였으며 만덕萬德이 모였다는 뜻을 새겨 ‘萬’자로 읽었다. 또한 중국 후진後秦 때의 인도 승려 구마라습(鳩摩羅捨 344~413)과 당나라의 승려 현장(玄奘 602~664)은 卍을 ‘德’자로 해석하여 길상행운, 유락有樂, 경복慶福, 행운幸運의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였다.<sup>20)</sup> 이러한 卍은

17) 허 균 저 《전통문양》 pp.112~113에서 참조. 대원사. 1999. 서울

18) 장기인 저 《한국 건축 대계 I:창호》 p.31. 보성각. 2000. 서울

19) 團萬壽字나 萬壽錦은 장수를 빌 때 쓰는말이다. 차용준 저 《전통문화의 이해-사찰문화편》 p.419에서 참조.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전주

20) 허 균 저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pp.49~52에서 참조. 돌베개. 2001. 서울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주택의 창살문양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길상만덕이 실내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 다. 아자亞字문양

아자살은 한 끝이 다른 살이나 울 거미에서 만나는 것으로 완자살이나 아자살은 보는 시각에 따라 햇빛이 비추지는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며 변형된 창살 무늬가 많고 주로 안채와 같은 여성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된다.

완자나 아자살은 세로와 가로가 정방형일 때가 많으나 크기가 약간 크거나 작게 하여 비례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보는 시각에 따라, 빛의 양에 따라 면 크기와 음영 등이 변화무쌍하게 보이게 된다.

모든 짜임이 비단 짜는 것과 같다 하여 금문錦紋이라 불렀다. 수복壽福, 길상초화吉祥草化등과 같은 자였으며 이 모든 무늬가 장생불사長生不死, 다부多富, 다복多福을 의미하고 가끔 주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sup>21)</sup> 중앙에 커다란 사각형을 놓고 네변에 각각 살을 붙여 이를 상하로 연결하는 문양으로 한 구획의 각변의 비는 1:1, 3:4, 1:√2, 2:3, 3:5, 1:√3, 4:7, 1:2, 1:√5, 3:7, 2:5 등 다양하지만 가장 우아한 것으로는 1:√2, 1:√3 및 황금비로 본다.<sup>22)</sup>

#### 라. 귀갑龜甲문양

거북의 등의 모양과 비슷한 육각형의 무늬로 예로부터 거북은 장수의 상징적 의미로 장수長壽, 상서祥瑞, 선수仙獸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거북은 우주를 상징하여 등의 둥근 형태의 등은 하늘의 천장을 상징하며, 가슴과 배는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땅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끝없이

21) 금광복 저 《색지공예》 pp.30~31. 대원사. 1995. 서울

22) 황금분할은 가장 이상적인 미의 비율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는 물론 중세에서도 신성시 하였다. 황금비의 근사값인 3:5는 3:4:5의 직각 3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며, 그러한 3각형은 일명 피타고라스의 3각형이라고도 한다. 옛 도형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되며 동양에서도 서구와 같이 비전되어 내려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의 고건축에서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송민구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3)> 《건축사》 제180호. p.34. 대한건축사협회. 1984. 서울

긴 수명을 뜻한다고 여겼다. 사신도에서는 거북을 현무玄武라 하여 북쪽을 담당하는 신을 뜻하는 것으로 오행사상에 적용하여 금금을 의미하고 있다.<sup>23)</sup>

#### 마. 귀자貴字문양

한자의 귀貴자 형태를 무늬로 살을 짜 넣은 것으로 들창과 불 받기에 사용하였다. 이 귀貴자 역시 길상문자의 하나로 복을 기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바. 용자用字문양

용자 창호는 만자와 아자와 같이 금문의 회문(回紋)<sup>24)</sup>의 이치와 같다고 하여 그 구성이 “壽”, “福”등 길상적인 문자 도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선은 매우 간결하며 창호를 구성하는 하얀 창호지면이 크고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택에 있어서 주로 방과 방 사이 미단으로 사용되었고, 사랑채와 같은 남성 공간에 주로 사용하였다.

#### 사. 꽃살문양

조선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형식으로 사찰과 궁궐 등 중요한 건축물에서 쓰여졌다. 그 구성과 표현이 정교하며 화려하다. 또한 꽃살 문양은 주로 연꽃을 이용한 무늬로 이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로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아 무엇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는 깨끗함을 의미한다.<sup>25)</sup> 무늬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에 사찰에서는 화려한 색채, 즉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다섯 가지로 색을 사용해 더욱더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화려한 무늬와 화려한 색채로 궁궐·사찰등 중요한 건축에서 쓰여진 꽃살은 대개 빗꽃살과 소슬꽃살 창호로 빗살창에 꽃을 새기고, 소슬 빗살에 꽃새김을 한 것이다. 특히 꽃살창은 극히 화려하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같은 일상생

23) 임영주 저 《전통문양자료집》 pp.57~59에서 참조. 미진사. 2000. 서울

24) 한바퀴 돌아 본디 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장생불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5) 박현정 <한국 창살문양의 현대적 표현 연구> pp.7~8.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활의 거처에서는 피하고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전각에서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창살 무늬는 수직선 구조의 창살은 강력한 권위와 준엄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 띠살과 같은 수평 구조는 정적이면서 차분한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사선의 형태로 된 창살은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운동 감을 가지고 있고 꽃살무늬는 화려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창살에 나타난 특징은 규칙적인 면, 잘 정돈된 질서와 화려하면서 가볍지 않은 우리만의 색깔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해 주며 단순한 문양을 넘어 보이지 않는 조상의 얼과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궁궐의 문양 중에 동물 문양이 나타나는데 기하학 형태나 문자의 형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사. 박쥐 문양

박쥐문양은 잡귀를 쫓아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번식성이 강한 생물인 까닭에 아들 딸 잘 낳게 해달라는 뜻에서 부인네들이 사용하는 반진고리나 함에 주로 붙였으며 가구장식이나 건축, 떡살 등에서 보여진다. 또한 박쥐는 한자로 박쥐 편蝠 박쥐 복福으러서 편복蝙蝠이라 불린다.<sup>26)</sup> 복蝠이 복福과 같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조상들은 행복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박쥐의 능력은 모든 조류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 하늘과 땅을 모두 다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동물이라 하기엔 새처럼 날아다니고 새라고 하기엔 네 발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두었다고 본다. 그래서 예전에는 박쥐 두 마리 문양은 쌍복雙福을 의미하고 다섯 마리가 나타나면 오복五福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박쥐문양은 덕수궁의 정관현에 기둥과 난간의 무늬로 나타난다.

#### 아. 사슴과 소나무

사슴은 십장생중 하나를 의미하는 문양으로 정관현에서 나타나는데 장생불사

26) 임영주 저 《전통문양자료집》 p.35. 미진사. 2000. 서울

長生不死한다는 열 가지 사물事物 곧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대나무, 달 등을 말한다. 여기서 사슴은 사슴 녹麕이 녹祿과 발음이 비슷하여 제위帝位의 상징으로도 보며, 아름다운 모습과 온순한 성격을 가진 동물로 무리를 지어 살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머리를 높이 들어 무리에서 낙오자가 없는지 살피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 친구의 우애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졌다고 한다.<sup>27)</sup> 생활 문양에 나타나는 소나무는 장생의 의미로 사슴과 함께 쓰이기도 하며 학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창살문양이 각각의 의미와 뜻은 선조들의 음양오행사상과 신앙적인 믿음과 자연에 대한 위대함에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여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 (2) 창살문양의 문화적 의미 분석

문화란 사회가 성장함으로서 인간이 획득하여 축적된 생활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는 생활능력의 결함과 각 시대 속의 사회에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변화 발전된다. 그래서 아무리 새롭고 편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능력의 증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든지 새로운 방식의 삶이 전통적인 것과 충돌할 때에 일으키는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문화와 전통은 의미가 같이 쓰여지는데 전통이란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는 정신적 경향이나 성격이 수많은 시대를 통하여 전승되고 하나의 규범적인 힘으로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통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 행동, 관습, 기술 등의 양식을 가리키며 또한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화와 함께 쓰여진다.

전통이란 오랜 세월을 통한 한 사회를 성격 지우는 감정과 행동의 방식이다. 전통

27) 허 균 저 《전통 문양》 pp.41~43에서 참조. 대원사. 1999. 서울

은 오랜 세월 모든 구성원들의 현실에 작용하는 힘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도 언제나 새로운 물결이 휩쓸려 오게 마련이다. 이 새로운 것은 신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중략)....전통은 과거의 묵수墨守가 아니다. 전통에는 이어나가야 하는 귀중한 유산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하는 인습도 있다.<sup>28)</sup>

즉 전통문화란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정신이 수많은 시대를 통하여 전승된 생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우리는 무조건 고집하기 보다 취사하여 현대와 맞는 문화로 이끌어 나가야 전통 문화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전통문화가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을 통하여 형성되듯이 한국인의 정서도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생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문화요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한국인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국미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미란 한국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정신적 요소이며 한국의 전통문화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의 정서도 더욱 강하게 전해진다고 본다.

한국의 정서가 강하게 물어 나는 창살문양은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던 종교들과 함께 해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함께 한 문화를 크게 민속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로 분류해 보고 이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생활과 연결되며 또한 전반적인 문화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준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해 보고자 한다.

#### ① 민속문화

전통문화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 계승되어 온 정신적·물질적 문화를 총칭하는 말이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한 자생적 문화만을 전통문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발달한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 문화의 폭을 넓히고 어느 쪽이든 민족적

---

28) 조요한 저 《한국미의 조명》 pp.259~260. 열화당. 1999. 서울

인 특색을 지니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계승되었을 때 전통문화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sup>29)</sup>

전통문화의 대표적 문화를 민속문화로 볼 수 있는데, 민속은 상층 지식인에 의해 형성된 특수한 문화가 아닌, 일반 서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순박하면서 꾸밈이 없는 멋을 간직한 민족문화이다.<sup>30)</sup> 즉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과 관습을 그 민족이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전승될 생활양식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민속문화는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된 고유문화이고, 외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상층 지식인들의 문화와는 달리 오랜 문화적 관습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주택 문화에서 나타나는 민속문화는 한국인의 정신인 소박함과 검소함이 잘 나타나며 따뜻한 정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주택의 얼굴인 창호에서 또한 이러한 느낌을 찾아 볼 수 있다. 서민들의 주택에서는 주로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무색의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창호로 되어 있으며 꾸밈이 없고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주택을 볼 수 있다. 사찰과 궁궐과 같은 곳은 화려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반면 일반서민 주택은 단출하며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민속 문화는 건축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쓰여지는 공예에서도 나타난다. ‘보자기’중에서 궁에서 사용되는 것을 궁보라 하였고 서민들에 의해 사용되어 진 것은 조각보라 하였다. 궁보는 비단과 같이 화려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쓰임에 맞게 만들어지지만 반면 서민들의 ‘보자기’의 개념은 바느질을 하며 쓰다 남은 천 조각들을 모아 실용성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조각보이다. 화려함 보다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서민문화와 지배계층의 문화가 틀리지만 기본이 되는 종교적인 사상이나 정신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모습이 계층이 달라도 하나인

---

29) 김승찬 외 저 《한국의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p.9. 삼영사. 2001. 서울

30) 김승찬 외 저 《한국의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pp.10~12. 삼영사. 2001. 서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건축이나 공예,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다.

## ② 불교문화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4세기경으로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로 가장 발전하고 있었다.<sup>31)</sup> 이때의 불교는 종교이면서 철학으로 고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깨닫게 하는 국가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 때 공식적으로 불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이때 불교는 철학적 불교가 발달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에 이어 발전을 계속 거듭해 왔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신라문화와 고려문화의 근간으로 깊이 있는 철학과 훌륭한 예술작품을 탄생시켰고, 서민들에게 민속과 풍습 등 생활문화의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 승유억불 정책으로 인한 5백년간 불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발전이 저해됨을 알고 있다. 이 때의 불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교문화의 전통이 왜곡되는 등 수난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한국인의 의식구조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세계는 모두 무상無常한 것이며 현상은 변해가는 것이므로 모든 존재는 무아無我라고 하였다.<sup>32)</sup>

---

31)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에 전진前秦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함께 순도順道를 보내 불상과 불경佛經을 전한 것이 그 시초이며 2년 후 374 아도阿道가 입국해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운 것이 우리 나라 절의 시작이다. 백제에는 침류왕 원년 384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東晉에서 들어왔다. 신라에는 제13대 미추왕 2년 263에 고구려 승 아도我道가 와서 불교를 전했다는 설이 있다. 차용준 저 《전통문화의 이해-유교, 불교, 도교문화편》 pp.519~520.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전주

32) 인생은 덧없는 것이므로 부귀영화나 생로병사 등에 대한 집착은 헛된 것이며 그저 조용히 체념하고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자연을 벗하여 살아가려는 정서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한 시절 살다가 가버리는 자신을 영원히 이 땅에 남기려는 생각은 물론, 주택을 호화롭게 치장하고 꾸미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자신의 주택을 짓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불교의 연애호사상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불교사상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욕심없이 조출한 주택을 짓고 순박하게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한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박영순 외 저

불교문화는 또한 사찰건축에서도 많은 의미가 나타난다. 사찰건축 중에서도 창살은 주로 조형적이며 종교적인 색채를 띤 꽃살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다. 꽃살은 다른 창살과는 달리 창살에 꽃의 모양을 새김 하여 만든 것으로 크게 빗꽃살과 소슬빗꽃살로 나누어진다. 모양은 매우 화려하며 색채 또한 일반 주택이나 궁궐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장식되어 졌다. 뿐만 아니라 각 사찰마다 다양한 창살무늬를 발견할 수 있다.

### ③ 유교문화

유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우리 한국인의 정신생활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통사상이다. 이러한 유교가 가장 발전하게 된 시대는 조선시대로 조선은 개국과 더불어 송유억불 정책을 정하여 조선왕조 오백년간 유교가 나라의 기본 정신세계였으며 모든 건축물에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sup>33)</sup>

유교는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을 예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덕목을 구별을 짓는 의식, 국민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사회도덕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을 삶의 기본개념으로 삼아 세 가지 도덕적 이념과 다섯 가지 윤리로 남계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모든 왕권국가에서 잘 나타나지만 가장 기저를 둔 정치사상으로 이룬 것은 조선시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교는 궁궐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기본사상을 이루며 안채와 사랑채는 행랑채의 기단보다 높고, 지붕에서는 안채와 사랑채는 팔작지붕이고 행랑채는 맞배지붕으로 하여 격을 두었다. 또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물은 중앙에 두고 전방과 후방에는 부속적인 건물을 두어 공간의 격을 두었다고 한다.

---

《우리 옛집 이야기》 pp.16~17에서 인용. 열화당. 1998. 서울  
33) 주남철 저 《한국 건축사》 p.14.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유교사상의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는 남존여비, 남녀 칠세 부동석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궁궐건축에서도 왕과 왕비의 침전은 별도로 지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왕의 침전을 왕비의 침전 앞쪽에 세워졌다. 궁궐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도 사랑채와 안채, 외측과 내측이 따로 지어졌으며 사대부집안에서는 조선초기부터 부부별침을 두어 사랑채에 침방을 만들었다.

여성들이 지내는 곳은 안채였으며 대문으로 드나들지 못하고 옆 대문이나 안채의 안대문으로 출입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내외 담과 내외 벽이 있는데 이것은 내외 담은 사랑마당에서 안채의 방을 바라볼 수 없게 차단하는 담이며, 내외 벽은 안대문으로 들어서면 안마당이 훤히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남녀구별의식으로 인해 내외 담, 내외 벽이 계급을 막론하고 쌓여졌다.

실로 유교사상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전통사상으로 신화라든가, 무속 신앙, 그리고 불교 사상 등도 결코 등한시 할 수는 없지만 한국사에 있어서 유교사상이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고 본다.

조선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대가족제도를 펼쳐 주택의 규모 또한 커지게 되었다. 또 남녀의 엄격한 구별로 공간의 분화를 이루고 상하의 구별에 의한 공간 분화를 동일 주택 내에서 이루게 하였다. 또한 엄격한 신분제도는 각 계급간의 주택규모의 차이, 목조재의 크기, 칸살크기, 기둥형태, 마감재 등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외에 건축 공간구성의 특성으로는 조선시대 건축은 소극적 공간과 적극적 공간의 교차반복을 이루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뚜렷한 특성이다. 또한 자연과의 융합을 꾀하려고 했던 점도 조선시대 건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유교는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의 최고 건축물인 궁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궁궐에 나타난 창호는 건축 못지 않게 다양하며 섬세하고 웅장함과 동시에 장엄한 느낌을 이끌어 낸다. 궁궐의 창호는 주로 정자 살과 빗살을 사용해 육중한 느낌의 표현하였고, 정자 살은 왕궁의 정면 창호와 교창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 또한 무게 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본다. 특색 있는 것은 소

슬 빗꽃살 무늬로 각 궁궐의 주요 전각에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다. 화려함과 웅장함, 섬세함은 모든 면을 갖춘 전각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 3. 조선궁궐과 창살문양의 유형 분석

#### 1) 조선궁궐의 창살문양

궁궐은 지나 온 2000년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한국사에서 전통 문화를 살피고 계승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sup>34)</sup> 궁궐뿐만 아니라 주택과 사찰을 통한 창살 문양이 있지만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왕이고 궁궐은 왕이 거처하며 정사를 본 곳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궁은 정궁正宮, 별궁別宮, 행궁行宮으로 나누는데, 경복궁은 유일한 정궁이고 창덕궁昌德宮, 창경궁昌慶宮, 덕수궁德壽宮은 별궁이며 행궁으로는 경희궁慶熙宮이 있다.

궁궐宮闕은 궁宮과 궐闕이 합쳐진 것으로, 궁은 왕이 국사를 보고 그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여러 전각들이 모여 있는 건축이고, 궐은 궁의 정문 양측에 우뚝 선 망루와 같은 것이다. 궁궐은 일반적으로 관청들이 배치되어 외조外朝, 왕이 정치를 하는 치조治朝,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연조燕朝 휴식과 연회의 원유苑遊공간으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행사와 정무를 보는 곳을 궁궐에서는 정전과 편전이라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보면 사랑채에 속하고, 침소로 사용하는 침전은 안채로 볼 수 있다. 또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경회루라 할 수 있지만 살림집은 누마루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르게 사용하는데는 평민과 지배계층이라는 격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왕과 평민이 같다면 이방국가에서 본다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위해 큰 건물과 그에 합당한 화려함을 더했다고 본다.

---

34) 이강근 저 《한국의 궁궐》 p.6. 대원사. 1997. 서울

## (1) 경복궁景福宮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5개의 궁 가운데 으뜸이 되는 정궁으로 면적은 126.000여평으로 두 차례의 화재로 인해 버려져 있던 것을 1865년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기강과 왕조의 복구를 기도하며 대대적으로 재건공사가 이루어 졌다. 임금이 정사를 보는 치소는 근정전勤政殿과 사정전思政殿이고, 왕과 그 가족들이 기거하며 쉬는 연소는 강녕전康寧殿과 교태전交泰殿 등이 있다. 빈칭, 정원, 당후 등과 같은 객사들은 쉼내 들어와 있는 관아로 신하들이 모여 국사를 논하는 외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은 일본인들의 만행으로 명성황후가 경복궁 안의 건청궁에서 시해 당하고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뒤 경복궁내의 전殿, 당堂, 루樓, 정亭, 합閣, 각閣<sup>35)</sup> 등 4000여칸이 헐렸고 광화문의 정면에 총독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정궁의 모습을 차츰 잃어 갔다. 그러나 다행 이도 1990년부터 주요건물이 복원 계획을 세워 추진되면서 만추전, 강녕전, 교태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복원되었다. 또한 1995년 궁궐의 정면을 막은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여 비로서 궁궐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 ① 근정전勤政殿

이곳은 경복궁의 정전으로서 1867년에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층으로

---

35) ‘殿’은 건물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자연히 건물의 규모도 크고 품위 있는 치장을 갖추었다. 이곳은 왕과 왕비, 혹은 전 왕비, 곧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쓰는 건물이다. 일상적인 기거 활동 공간인 경우보다는 의식 행사나 혹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건물인 경우가 많다. ‘堂’은 전에 비해 규모는 떨어지지 않지만 격은 한 단계 낮은 건물이다. 여러 사람이 집회하는 건물로 사용하지만 전에 비해 일상적인 활동 공간으로 쓰였다. ‘樓’는 ‘높은 건물’, ‘다락집’등의 뜻을 나타내는 건물로 바닥이 지면에서 사람 한 길 높이 정도의 마루로 되어 있는 집이다. 주요건물의 일부로서 누마루방 형태로 되어 있거나 큰 정자 형태를 띄기도 한다. ‘亭’은 정자의 뜻으로 놀거나 쉬기 위하여 주로 경치나 전망이 좋은 곳에 아담하게 지은 건축물을 뜻한다. ‘閣’이나 ‘閣’은 전이나 당의 부속 건물일수도 있고 독립된 건물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전이나 당 부근에서 그것을 보위하는 기능을 한다. 홍순민 저 《우리 궁궐 이야기》 pp.120~121에서 참조. 청년사. 2000. 서울

마련한 월대와 외별대의 기단위에 정면 5칸, 측면5칸, 건평 약 197평의 2층 건물을 세웠는데,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있다. 건물은 2층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데, 1,2층은 벽 없이 창호로 꾸몄다. 특히 1층의 창호는 꽃살창의 분합문을 두고 그 위에 광창으로 빗살창을 꾸몄다. 고종 4년(1867)에 중건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5칸의 중층으로 정면과 좌우 측면, 후면등 사면 모두는 벽체 없이 창호를 달았다. 전각의 창호는 울거미에 30도와 90도, 150도의 살들을 짜 넣은 솟을빗꽃살로<도판 17> 경복궁 내에서 가장 화려한 창살이면서 유일한 무늬이다.

정면과 배면, 좌우 측면의 어간과 협간,<sup>36)</sup> 나머지 간들에는 솟을빗꽃살로 되어 있다. 또 이 창호 위에는 정자교살창井字交箭窓을 설치하였고 1층과 2층 사이에 교창交窓을 설치하였다. 이들 솟을 빗꽃살창호는 전각 내부에 은은한 빛과 함께 살대의 그림자가 비침으로서 정적이면서도 위엄 있는 공간을 이루게 된다.<sup>37)</sup>

## ② 사정전思政殿

근정전 북쪽의 사정문을 지나 근정전과 같은 축선 상에 놓여 있다. 비교적 높은 기단을 꾸미고, 그 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 팔작지붕을 한 건물을 세웠다. 동쪽에는 만춘전이, 서쪽에는 천추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사정전은 정궁의 편전으로, 왕이 공식적인 큰 행사가 아닌 일상업무를 보던 집무소이다. 궁제로 보아 근정전과 사정전을 합한 일곽을 치조라 할 수 있다.

정면 5칸, 후면 5칸으로 되어 있으며 어간과 좌우 협간 및 측면의 어간에는 네짝 밖여단이 띠살창호細箭窓戶<도판 18>를 달아 출입하고, 나머지 칸들은 머름위에 네짝 궁관 띠살창호細箭窓戶를 달아 채광 창으로 사용하였다. 사정전의 문과 창이 폭들이 칸마다 서로 달라 각 주 칸의 넓이에 따라 창호 위에 긴 장방향의 교창交窓을 달았다. 우측 온돌방 전면, 뒷마루<sup>38)</sup>에는 띠살細箭과 아자살亞

36) 어간은 건물의 중앙간을 말하는 것으로 정면이 여러 칸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정간이라고도 한다. 협간은 어간의 양측에 있는 간으로 전면이 여러 칸으로 된 건물에는 어간 다음에 있는 칸이다. 대개 중앙보다 작게 한다. 김왕직 저 《한국건축용어》 pp.62~63. 도서출판 발언. 2001. 서울

37) 주남철 저 《한국의 문과 창호》 p.156. 대원사. 2001. 서울

38) 고주와 외주 사이에 만들어지는 마루로 고주는 건물 내부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字箭로 되어있다.

### ③ 만춘전萬春殿

만춘전은 사정전 동편에 천추전과 대칭으로 되어 있다. 정면6칸, 측면4칸의 건물로 규모와 법식 모두가 천추전과 같다. 중앙 정면2칸, 측면1칸 반의 대청을, 좌우에는 온돌방을 두고 그 앞 뒷간에는 창호를 설치한 뒷마루가 있다.

중심 2칸은 개방된 뒷간이고 좌우 협간에는 머름위에 네짝 박여단이 띠살細箭<도판 19>를, 안쪽으로는 두짝 아자살亞字箭창호를 달았다. 좌우 측면 전뒷칸과 어간에는 머름위에 두짝 박여단이 띠살細箭창호를, 어간 안쪽에는 두짝 아자살亞字箭 미단이 창호를 달았다. 대청의 정면 2칸에는 띠살細箭창호를, 상부에는 빗살교창을 달았다. 대청 좌우 온돌방에는 띠살細箭창호와 방사이에는 아자살亞字箭 미단이 창호를 설치하였다. 대청 후면에는 띠살細箭창호와 좌우 온돌방 전면과 뒷간마루 사이에는 두짝 박여단이 띠살細箭창호를 안쪽으로는 아자살亞字箭 미서기창을 달았다.

### ④ 천추전千秋殿

조선 고종 2년(1865년)에 중건된 것으로 사정전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추전과 만춘전은 사정문의 부속건물이다. 정면 6칸, 측면 4칸의 평면으로 모두 24칸의 조그마한 규모로 전면 중앙 2칸에는 내진주<sup>39)</sup>까지 퇴량을 얻고, 다른 곳은 사분합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면은 마루로 되어 있다.

중앙 안쪽과 후면의 칸마다, 정면과 배면의 좌우 협간과 측간에 띠살細箭창호<도판 20>를 달고 중앙과 측간에는 창호위에 빗살교창을 달았다. 좌우 측면과 중앙 2칸에는 띠살細箭창호와 빗살교창을 달았으며, 대청과 큰 방사이에는 정자

---

외주는 건물 외곽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면서 안방과 건넌방, 대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39) 내진주는 고주보다 안쪽에 있는 기둥으로 고주는 건물 내부의 내진칸을 감싸고 있는 기둥을 말한다. 대개 내부의 기둥은 외곽기둥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고주라고 부르는데 공간의 명칭을 따서 내진칸에 있으므로 내진주라고 한다. 김왕직 저 《한국건축용어》 p.51. 도서출판 발언. 2001. 서울

살井字箭 불발기창호를, 안쪽으로는 완자卍字 미단이창호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문지방만 있고 창호는 없다. 좌우 온돌방은 띠살細箭창호와 완자卍字미단이창호를 달았다.

사정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창호의 기법도 서민 주택의 느낌이 더 강하여 검소함이 느껴진다.

#### ⑤ 강녕전康寧殿

왕의 정침인 강녕전은 연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동쪽엔 연생전과 서쪽엔 경성전을 두었다. 정면 11칸, 측면 5칸의 정면3칸은 개방된 툇마루이고, 안쪽으로는 정면 3칸 측면3칸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청이 있으며 후면 3칸은 분합문을 단 툇마루이다. 대청 좌우 3칸은 온돌방으로 되어있고 온돌방 전면箭面에는 긴 누마루가 있다.

온돌방은 상부에는 아자亞字창호<도판 21>, 정면 중앙 대청에는 띠살細箭창호<도판 22>, 후면 툇마루 3칸에는 완자卍字 창호를 달고, 상부에는 빗살교창을 달았다. 정면 중앙 3칸과, 좌우 툇간 3칸, 끝단 측칸 1칸에는 완자卍字살창호를 후면 중앙 3칸과 좌우 3칸에는 띠살細箭창호와 빗살교창을 달았다. 좌우 측면 중앙 3칸과 양끝 단에는 띠살細箭창호와 교창交窓 빗살교창을 달았다. 대청과 긴 온돌방 사이에는 정자살井字箭 불발기 창호와 완자卍字살창호를 달았다. 대청 후면, 전면 대청과 좌우 툇간 사이에는 띠살細箭창호와 빗살교창을 달았다. 후면 중앙에는 정자살井字箭 불발기를 달았다. 좌우 여섯 개의 작은 온돌방은 완자卍字箭창호와 온돌방 좌우 누마루<sup>40)</sup>쪽은 띠살細箭창호를 달았고 온돌방 쪽으로는 완자卍字箭 설치하였다

일본인들이 강제로 창덕궁의 내전을 복구하기 위해 강녕전을 헐어 창덕궁의 희정당을 꾸몄다는 기록 때문인지 화려한 창살문양을 뒤로한 채 강녕전의 모습은 전통적인 느낌보다는 다소 현대적인 느낌으로 경복궁과 다소 분리되어 보인

40) 지면으로부터 높이 띄워 지면의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한 누각 형식의 마루 칸이다. 양반집의 사랑채 한쪽에 설치해 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주로 여름에 사용한다. 박영순 외 저 《우리 옛집 이야기》 p.220. 열화당. 1998. 서울

다.

#### ⑥ 교태전 交泰殿

교태전은<도판 23, 24> 왕후의 침전으로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정면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두었다. 온돌방 옆은 벽체로 마감하고 그 밖으로 누를 두었다. 대청과 방 사이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교태전 좌우로는 건순각과 원길헌과 이어져 전체적으로 口자 형태로 교태전을 둘러싸고 있다. 크기만 강녕전과 다를 뿐, 창호 형태는 강녕전과 같고, 주변의 건순각과 원길헌 또한 강녕전의 행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 ⑦ 자경전 慈慶殿

궁궐에서 왕이 승하하면 왕비는 대비가 되어 대비전으로 물러나고, 세자빈이었던 새 왕비는 교태전으로 가게 되는데 자경전은 대비전이라 한다.<sup>41)</sup> 자경전은 서쪽 후면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북쪽에 설치된 건물로 정면 10칸, 측면 4칸의 형태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정면 1칸, 측면 2칸의 청연루가, 서쪽 후면으로 정면 2칸, 측면 6칸은 돌출된 형태로 전체적으로 L 모양을 이룬다. 청연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협경당과 서로 연결되어 한 건물로 처리되어 있다.

정면 중심 3칸에는 창호가 없이 개방되어 있고, 대청 전면과 좌우 협간, 동측 누마루, 동측면과 서측면 머름위<sup>42)</sup>, 후면 중앙 대청, 모두 띠살細箭창호<도판

41) 궁궐에서 중전이 정침에서 생활하다가 왕이 승하하면 왕비는 대비로 승격되고 세자빈이 중전으로 오르게 됨에 따라 중전이 된 세자빈이 기존의 정침을 쓰게 된다. 대비로 승격한 전대의 중전은 다른 침전으로 옮겨 생활하게된다. 또한 대비가 생존하였을 때 왕이 승하함으로써 중전이 대비가 되면, 대비는 대왕대비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에도 대왕대비의 처소를 마련하게 된다. 주남철 저 《한국의 문과 창호》 pp.164~165. 대원사. 2001. 서울

42) 창문의 아랫부분에 문지방을 높게 하기 위하여 꾸미는 구조로 머름 동자와 어의 동자로 키를 높이고 머름에 청판을 끼워 밀폐시킨다. 머름의 전체 높이는 사람의 앉은 키를 고려하여 1.8척 가량으로 하여 겨드랑이 높이를 고려한 것이다.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며 방안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한국건축분과위원회

26>로 되었으며 중앙 대청의 뒷면과 뒷퇴의 사이, 대청과 좌우 온돌방 사이에는 띠살細箭창호를 방 안쪽으로는 아자살亞字箭창호로 되어있다. 동서 온돌방 앞뒷간에는 띠살細箭창호를, 그 안쪽으로는 아자살亞字箭 쌍창을, 방과 방사 이에는 아자살亞字箭 미서기창호가 설치 되어있고, 나머지 밖 여단이에는 전부 띠살細箭창호와 흑창으로 되어있다. 서 북쪽으로 돌출된 방과 청 사이에는 띠살細箭창호와 아자살亞字箭 미서기창을 달았다.

매우 높은 기단위에 형성된 자경전은 위엄감과 딱딱한 모습을 보이지만 청연루와 협경당과의 자연스런 연결로 다양한 창호가 나타나며, 높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지붕의 모습이 율동적인 점에서 아름다운 조형미가 엿보인다.

#### ⑧ 경회루慶會樓

경회루는<도판 27> 외국 사신의 접대처로 넓은 방형의 연못 속에 방형의 큰 섬 하나와 작은 두 개의 섬이 있고, 큰 섬위에 경회루가 자리잡고 있다. 경회루는 물 속에 장대석을 쌓아 섬을 만들어 세운 정면 7칸 측면 5칸으로 아래층과 위층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동쪽에는 밖에서 출입할 수 있는 3개소의 돌다리가 놓였다.<sup>43)</sup> 위층은 마루를 깔았으며 안쪽 기둥에 분합문을 달고 상부에 광창을 달아 실내의 채광에 신경을 쓴 점을 볼 수 있다. 경회루는 띠살細箭창호와 완자살 卍字箭교창<도판 28>을 설치하였다.

우람한 지붕이 시선을 압권하며 건물 전체와 비례가 조화를 이루며 넓은 경북 궁을 내려다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와 하늘로 솟아오를 것 같은 지붕선은 한국을 대표하는 樓라고 여겨진다.

#### ⑨ 향원정香遠亭

경회루가 사신을 접대하던 공적인 공간이라면, 향원정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사적인 곳이었다. 이 정자는 중층의 육각 누각건물이지만 누마루 밑의 구조까지

---

회 저 《요해 한국미술사》 p.266. 공간예술사. 1991. 충청남도  
43) 장경호 저 《한국의 전통건축》 pp.292~295에서 참조. 문예출판사. 1993. 서울

포함하면 3층 건물이 된다. 이 정자는 그 형식이 아름답고 비례미도 뛰어나 하나의 공예적 조형물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말기 궁궐내의 정자로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연못의 다리를 건너 육각형의 아름다운 중층의 건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듯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궁궐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함인지 나무들에 둘러싸여 신비감 마저 든다. 하나의 건축이라기 보다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되어질 정도로 연못과 나무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진다.

정자 1층과 2층 모두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아자살亞字箭창호<도판 29>를 달았다. 아자살亞字箭의 화려하면서 수려한 문양과 창방 밑의 화려한 꽃무늬는 향원정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연못과 뒤의 백악산이 아름다운 조경을 이루어 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향원정을 잇는 용도로만 보기엔 훌륭한 난간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복궁 안에는 외조와 연조의 영역에는 전각등의 창호들은 머름 없이 띠살細箭창호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간들은 머름위에 밖 여닫이 띠살細箭창호를 달았다. 내부는 띠살細箭창호를 설치하고 안쪽으로 완자卍字와 아자亞字 미닫이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경복궁의 대부분이 초기의 모습을 사라지고 중건되거나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경복궁景福宮 창살문양의 종류

	전 각	창살문양의 종류
경 복 궁 景 福 宮	근정전 勤政殿	숫을빋꽃살, 井字箭
	사정전 思政殿	細箭
	천추전 千秋殿	細箭, 井字箭, 卍字箭, 빗살교창
	만춘전 萬春殿	細箭, 亞字箭, 빗살교창
	강녕전 康寧殿	亞字箭, 細箭, 빗살교창, 卍字箭, 井字箭
	교태전 交泰殿	강녕전과 동일
	자경전 慈慶殿	細箭, 빗살교창, 亞字箭
	경회루 慶會樓	細箭, 卍字箭
향원정 香遠亭	細箭, 卍字箭, 亞字箭	

## (2) 창덕궁昌德宮

창덕궁은 경복궁의 이궁으로 자연의 지세에 따라 건축해 가장 자연스러운 배치를 이루고 있다. 창덕궁이 경복궁보다 중요한 궁궐로 사용된 이유는 정치, 경제적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자연 지세에 따라 건축되어져 궁궐에서 느껴지는 정감과 애착심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한다.

창덕궁 또한 임진왜란 때뿐만 아니라 계속 연이은 화재로 재차 중건을 거듭<sup>44)</sup> 하였고 순조 때 중건을 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

초창기의 창덕궁은 외전 74칸, 내전 118칸이라는 기록이 있는데<sup>45)</sup> 현재의 규모보다는 작았고 점차 늘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주변을 살펴보면 동쪽에는 창경궁이 북쪽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공동으로 사용한 후원이, 남동쪽으로는 종묘, 서쪽으로는 정궁인 경복궁이 있어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1920년대 이후로 원래의 모습과는 크게 변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궁궐로 주요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고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문화재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sup>46)</sup> 이러한 이유로 관람을 제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된 부분은 후원인 비원과 정전인 인정전仁政殿, 선정전宣政殿, 희정당熙政堂, 대조전大造殿과 주합루宙合樓로 되어있다.

### ① 인정전仁政殿

인정전은 창덕궁의 외전 중 중심인 정전으로 신하들의 하례식賀禮式과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던 곳으로 국가의 공적인 행사에 사용한 건축물이다. 태종 5년에 처음 창건되었으나 그후 세종 원년에 재건되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탔으나

---

44) 임진왜란으로 불타게 되어 선조 40년에 다시 짓기 시작하였고 인조반정 때 또 불에 타게 되어 인조 25년에 다시 중건하게 되었다. 주남철 저 《한국 건축사》 pp.247~249에서 참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45) 홍대형 저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편》 p.110. 기문당. 2001. 서울

46) 장순용 저 《창덕궁》 p.114. 대원사. 1997. 서울

광해군 때 복구되었다가 1744년에 불타 다시 재건되고 1803년에 또다시 화재를 입어 1804년에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대 잔재인 전등갓과 커튼이 변조된 창문과 쪽마루가 함께 어울리지 않게 꾸며져 있는데, 원래 1층 벽은 모두 전통식의 꽃살문이 둘러져 있고 상층은 교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중층이나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 있다. 정면 하층, 좌우 협간과 측간에는 머름위에 솟을빛꽃살창호<도판 30>를 달았고 이들 창호 위에 빛살교창으로 되어있다. 2층은 교창이 이중창으로 되어있다. 궁의 대표 격인 정전의 창호에 황토에 가까운 색으로 칠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무의 순수한 재질을 살려 지은 전통건축과는 다소 이질감이 느껴져 화려하면서 아름다운 문양의 솟을빛꽃살을 다소 격하시켜 보인다.

인정전은 궁궐의 정전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궁궐 중 하나이지만 일제시대 설치된 전등갓과 커튼 조명, 창문 등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 ② 선정전宣政殿

현존하는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으로 편전의 기능은 임금이 신하들과 국가의 정치를 의논하는 곳으로 주위에는 행각으로 둘러져 있어 넓지 않은 아늑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주위를 행각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남행각과 남문인 선정문까지는 조선초 천량이라 부르던 복도가 있어 비를 피할 수 있다.<sup>47)</sup> 유일하게 청기와를 얹은 건물이며 건물의 4면은 세 살 분합창을 하고 후측에는 출입문을 두어 복도를 통하여 인정전과 통하도록 하였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되어있고 중앙 어간과 좌우 협간에는 띠살細箭창호<도판 31>를 달았다. 선정전은 문의 용도만 다를 뿐 창살의 모양은 모두 띠살細箭창호로 되어있다.

## ③ 희정당熙政堂

선정전의 동쪽, 대조전 정남에 위치한 편전으로 정사를 보는 처소라 하였다.

47) 주남철 저 《한국 건축사》 p.252.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동궐도에서는 중층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그려져 있지만 화재로 인해 재차 복원 된 것으로 현재 정면 11칸, 측면 5칸의 단층으로 되어 있다.<sup>48)</sup> 이 건물의 짜임새는 전·후면 중앙에는 넓은 계단이 있고 정면 9칸 측면 3칸은 거실로 쓰고 주위에는 텃간을 두어 통로로 사용하였는데 이 중 정면 3칸과 측면 3칸을 통간으로 하여 응접실로, 그 서쪽에는 같은 크기의 회의실로 사용하였으며 동쪽의 3칸은 여러 칸으로 막아 창고로 사용하였다.

정면 중앙3칸에는 머름없이, 좌우 3칸에는 머름위에 완자근字창호<도판 32>로 되어있고 그 위에는 완자교창근字交窓<도판 33>이 설치 되어있다. 대청<sup>49)</sup>의 전면과 후면 3칸에는 용자用字창호와 상부에는 빗살교창, 안으로는 아자亞字 변형 살짜임을 한 교창이 있다. 동측 당판문<sup>50)</sup>을 열고 들어가면 유리문으로 되어있고 큰방의 뒷방도 유리문과 당판문을 설치하였다. 이 큰방에는 띠살細箭창과 용자살用字箭창호를 달았고 서쪽 텃간에는 당판문과 밖여단이 띠살細箭창호에 용자살用字箭 유리 미단이문으로 되어있다. 회정당 후면과 동측면 남텃간, 북텃간에는 머름위에 완자창근字窓과 완자살근字箭교창을 설치하였다.

회정당은 여러 차례 화재와 복원을 거듭하여 내부의 상당부분이 서양식으로 꾸며졌으며 창호지 대신 유리문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자살用字箭의 굵고 큼직한 선과 완자살근字箭의 아름다운 선이 함께 어우러져 완자살의 모양은 전체 전각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

#### ④ 대조전大造殿

창덕궁의 왕비의 정침으로 왕과 왕비의 처소處所로서 가장 격식있는 주거형태

48) 장순용 저 《창덕궁》 p.58. 대원사. 1997. 서울

49) 대청은 큰 마루라는 의미로 거의 모든 한옥에는 마루칸이 마련되어 있다. 보통은 4칸 대청이지만 큰 대청은 6칸 대청도 있다. 살림집의 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련되며 방의 출입문은 대청 쪽으로 나게 마련이다. 대청은 우물마루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전면은 트이고 뒷벽에는 당판문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청은 여름을 시원하게 나도록 해주며 대청과 방 사이에 분합문을 달아 이것을 들어 걸면 하나의 큰공간으로 사용된다.

50) 당판문은 살 대가 아닌 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문 울거미가 있어 다른 판 문과 구분되어 진다.

의 뜻이 담겨 있으며 왕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회정당 북쪽 행각 가운데로 난 선평문을 들어서면 높은 월대 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조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겹처마이고 중앙의 3칸은 대청이 되고 전면 퇴간은 개방하였고 양쪽의 2칸은 거실로, 그 외의 퇴간은 다락이나 복도로 사용하였다.

대조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중앙의 3칸에는 대청이, 좌우에는 온돌방이 있는데 이들방 전면에는 반간 폭의 퇴를 덧달아 내었다. 대조전 좌우 전면3칸에는 완자창<sub>卍</sub>字窓<도판 34>과 완자교창<sub>卍</sub>字交窓<도판 35>이, 대청 전면 3칸에는 들어열개 띠살<sub>細</sub>箭창호를 달고 그 위에 빗살교창을 달았다. 북쪽 뒷간 사이 3칸에는 아자살<sub>亞</sub>字箭변형의 유리미단이창을 달고, 좌우 온돌방사이에는 숫대살 불발기 창호 속에 아자살<sub>亞</sub>字箭 미단이창호로 되어있다. 정면과 측면에는 띠살<sub>細</sub>箭<도판 36>로, 북벽과 협실, 동벽과 동협실, 동온돌방과 측협실 모두 아자살<sub>亞</sub>字箭로 설치되어 있다. 이들 협실의 대조전 후면에는 띠살<sub>細</sub>箭창을 달고 그 속에 아자<sub>亞</sub>字미단이창으로 설치하였다.

왕비의 정침중에 유일하게 월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살문양뿐만 아니라 난간의 문양 모양에 있어 화려함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완자창호와 완자 교창의 모습은 왕비의 품위를 말해주는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 ⑤ 부용정芙蓉亭

이곳은 왕이 신하들과 꽃을 즐기고 고기를 낚으며 시를 읊던 곳이라 한다. 후원으로 들어서면 첫 번째 고개에서 처음 만나는 정자가 부용정이다. 큰 장방형의 연못과 연못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부용정 멀리로는 주합루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그 모습이 아름다우며 자연과 하나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동측면과 남측면에는 띠살<sub>細</sub>箭창호<도판 37>를 달았고 정자 안 북측면에는 누마루가 있고 창호나 벽체가 없어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정자 안의 중심부에는 빗살의 팔각 불발기 들어열개<도판 38>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용정은 팔각의 돌기둥 두 개가 물 속에 세워져 연못 쪽으로 돌출한 루樓 부분을 바치고 있어 방형의 연지蓮池에 걸쳐 건물의 형태를 변화 있게 꾸미고 세 부장식의 섬세함에서 잘 조화된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고 있다.

#### ⑥ 주합루宙合樓

주합루는<도판 39> 경복궁의 경회루와 마찬가지로 창덕궁의 연회장으로 창건 당시에는 규장각의 정실로 꾸며져 글공부하던 독서실이었다. 부용정 연못 북쪽 언덕 위에 위치한 것으로 중층 누로 아래층은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고, 위층은 열람실로 되어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듯 산을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즈막한 산 위에 지어 졌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아래의 아름다운 연못과 나무, 부용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높은 곳에 지어졌다고 본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1층 중앙 정면 1칸, 측면2칸 크기의 대청이, 좌우 칸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모두 우물마루<sup>51)</sup>로 처리하고 있다. 1층과 2층 모두 띠살細筋로 되어 있고 궁판의 유무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

#### ⑦ 영화당映花堂

부용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왕들이 꽃을 구경하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며 서예를 벌이는 등 다양한 목적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면5칸, 측면3칸의 건물로 장대석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로 뒷간 삼면을 개방한 정자 같은 건물이다. 평면은 북면의 옥실1칸만을 온돌로 꾸미고 가운데 2칸은 대청과 삼면의 뒷간은 마루를 깔았다. 대청의 삼면은 완자살卍字筋 분합문<도판 40>을 설치하여 들어올리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면 창호들은 띠살細

51) 우물마루는 한옥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마루깔기 유형이다. 마루를 놓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깔린 마루의 모습이 우물정 ‘井’ 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루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건조 수축이 심한 한국기후에 적합한 마루유형이다. 나무가 말라 창판 사이가 벌어지면 마루를 다 뜯지 않아도 한 장 한 장 촘촘히 밀어 넣고 한 장 더 보강해 넣으면 되는 효율적인 마루이다. 김왕직 저 《한국 건축 용어》 p.160. 도서출판 발언. 2001. 서울

箭무늬로 구성되었고, 그 위에 교창交窓은 빗살무늬로 되어 있다.

#### ⑧ 영경당演慶堂

조선 순조28년에 당시 왕세자였던 익종이 사대부 집을 모방하여 만든 민가풍의 99칸 건물이다. 창덕궁 안에 세운 유일한 민가형 건물로 정자인 농수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도리<sup>52)</sup>집이다.

연경당은 정면 6칸, 측면 2칸이며 오른쪽의 끝의 2칸은 누마루의 다락으로 높은 돌기둥이 지탱하고 다음 5칸이 대청이고 다음 칸이 방인데 반 칸씩의 전퇴가 있고 뒤로도 한 칸의 방이 있다. 문과 창은 살대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무늬인 것을 사용하고 기둥간의 4칸에 4분합문의 덧문이 달렸다. 창살은 아홉자를 기본으로 한 구성인데 완자살卍字箭<도판 41>에 가깝다.

이곳 사랑채 평면은 정면6칸, 측면2칸으로 정면 6칸 중 맨 우측에 누마루가 있고 가운데 4칸은 뒷칸으로 개방하였는데 4칸 중 우측 2칸이 대청이고 좌측2칸이 방이며 맨 좌측은 마루이다. 안채에서 뺀어 나온 온돌방 2칸은 이 마루 뒤로 연결된다. 안채와 사랑채는 쪽마루로 연결되어 있고 경계부분에는 판문을 달아 개폐할 수 있게 하였다.

전면에는 정자 살을 대청마루에는 완자 살의 변형 문양으로 되어 있고, 사랑대청에는 전형적인 정자살 卍字箭<도판 42>로 되어 있다. 대청쪽 창지는 빗살<도판 43> 되어 있다. 사랑채는 신경을 많이 쓰인 듯 보이고,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실은 모두 띠살細箭무늬로 되었다.

일반 주택보다는 크지만 매우 서민적인 느낌이 강한 모습이며 99칸집인 만큼 창호의 종류 또한 다양하였다. 다양한 창호의 모습은 다채로운 변화를 통해 궁궐의 민가형 주택으로서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

52) 민도리 집은 가장 간단한 구조로 창방이 없다는 것으로 지붕과 기둥사이에 보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살림집이나 사찰과 궁궐의 행각과 행랑등에서 사용되어졌다. 한국건축분과위원회 저 《요해 한국건축사》 p.364. 공간예술사. 1991. 충청남도

⑨ 낙선재樂善齋

창덕궁의 동남쪽 창경궁과 이웃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낙선재는 석복헌과 수강재 등 세 개의 건물을 합해서 낙선재라 부르고 있다. 낙선재는 지금은 창덕궁 영역에 있지만 궁궐지에 의하면 창경궁에 속한 내궁이다. 이 건물은 처음 현종 13년(1847)에 왕의 연침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지어졌다가 이후 현종13년(1848)에 빈의 처소를 위해 지어졌다.<sup>53)</sup>

서쪽에 누마루를 돌출시키고 동쪽에는 대청과 방을 둔 집이다. 정면 6칸, 측면 2칸의 一자집으로 동·서행각이 연결되어 있고 덧퇴를 두어 뒷마루 앞에는 난간으로 장식되어 있다.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서쪽 정면 1칸, 측면1칸에는 누마루가 돌출 되어 一자로 이루고 있다. 중앙 정면 2칸, 측면1칸 반의 크기의 대청이 있고, 동쪽으로는 온돌방과 이어진 측면 1칸 반의 크기에는 다락을 두었다. 남쪽에도 누마루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온돌방으로 되어있다.

대청 전면2칸에는 개방된 뒷마루를 두었고, 띠살細箭창호를 달았다. 내부에는 정자살井字箭을 기본으로 하는 꽃새김한 미단이 창호<도판 44>를 대청과 온돌방 사이에는 완자살卍字箭을 대청 전면에는 완자변형의 창호<도판 45>가 있다. 대청 후면에는 머름위에 띠살細箭창을, 온돌방 전면2칸에는 머름위에 띠살細箭창호와 완자살卍字箭 변형 미단이창호<도판 46> 그리고 두짝 갑창을 설치하였다. 온돌방 후면 뒷마루의 2칸과에는 띠살細箭창호와 완자살卍字箭 변형 미단이 창호<도판 47>를 동쪽으로는 띠살細箭창호를 달았다. 건넌방 서쪽과 북쪽 각1칸에는 띠살細箭창호를 그 속에는 완자살卍字箭 변형<도판 48> 미단이 창호를 달았다. 특히 남쪽 행랑의 마루에는 완자살卍字箭을 변형한 창호들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운동감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의 건물로 양반집의 평면과 기품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지만 건축 의장적인 면으로는 근대의 여러 종류의 창살무늬와 난간으로 꾸민 섬세한 건물로 보인다. 창살문양은 조선 궁궐 중 가장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각각의 개성

53) 홍대형 저 《한국의 건축문화재》 p.145. 기문당. 2001. 서울

과 특징이 다르지만 나무의 재질감과 같은 문양을 변형시켜 다양함 속의 통일감을 보여준다.

〈표-2〉 창덕궁昌德宮 창살 문양 종류

	전 각	창살 문양의 종류
창 덕 궁 昌 德 宮	인정전 仁 政 殿	빗살, 소슬빛꽃살
	선정전 宣 政 殿	細箭
	희정당 熙 政 堂	細箭, 用字箭, 亞字箭, 빗살
	대조전 大 造 殿	細箭, 卍字箭, 亞字箭, 빗살
	부용정 芙 蓉 亭	細箭, 卍字箭, 井字箭, 빗살
	주합루 宙 合 樓	細箭
	양화당 暎 化 堂	細箭, 빗살
	연경당 演 慶 堂	細箭, 卍字箭, 井字箭, 빗살
	낙선재 樂 善 齋	細箭, 卍字箭, 亞字箭, 井字箭 변형, 卍字箭 변형

### (3) 덕수궁德壽宮

덕수궁은 창건당시 경운궁이었으며 광무11년에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개칭<sup>54)</sup>하였다. 덕수궁은 태평로의 발전을 위해 담장을 허무는가 한편 담 대신 철책을 치고 당시 덕수궁을 도시민의 공원, 놀이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궁내에 스케이트장과 벤치, 상점, 음식 점등을 지어 선조이래 갖추고 있던 궁다운 면모를 모두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후 담장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궁내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옛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덕수궁에는 지난날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18,635평의 경내에는 중화전中和殿, 석어당昔御堂, 즉조당卽祚堂, 함녕전咸寧殿, 덕홍전德弘殿, 석조전石造殿 등이 남아있다.

54) 김순일 저 《덕수궁》 pp.11~13. 대원사. 2001. 서울

### ① 중화전中和殿

지금의 중화전은 1904년 4월의 화재 뒤, 1905년 1월에 다시 재건된 것으로 조하를 받던 곳이었다. 중화전은 광무 8년에 덕수궁에 큰불로 재건되었다. 처음의 모습은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과 같이 2층으로 되었으나 1906년에 지금과 같이 단층으로 축소되어졌다.

정면 5칸, 측면 5칸의 건물로 정면 및 후면 어간과 좌우 협간에는 머름없이 들어열게 솥을빋꽃살창호<도판 51>를 달았으며, 상부에는 빗살교창을 달았다. 좌우 뒷간에는 머름위에 솥을빋꽃살창호를 달고, 좌우 동측면과 서측면에는 머름없이 솥을빋꽃살창호를 달았다. 나머지 칸에는 모두 머름위에 솥을빋꽃살창호로 되어 있다.

고종이 대한제국 때 조성한 건물로 전통적인 궁궐의 느낌보다는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다. 창살문양에 있어 다른 궁의 정전과 같은 솥을빋꽃살창호이지만 서양의 화려한 문양이 연상되며, 지붕이 다소 날카롭게 보여 한국적 부드러움이 적게 드러나 보인다.

### ② 함녕전咸寧殿

함녕전은 황제의 침전으로 정면 9칸, 측면 4칸으로 뒤쪽에 붙은 형식은 ‘ㄱ’형식이고 어간 3칸의 전면 뒷간을 개방한 것은 연침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외곽의 창호는 정자井字<도판 52>와 띠살細箭<도판 53>의 사분합문으로 설치하였고 정면 중앙 3칸에는 退를 두어 개방하였으며 살창을 退의 안쪽으로 달았다. 외부로는 토벽이 없고 정면 중앙과 좌우 측면 모두 띠살細箭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빗살교창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크기가 거대하여 웅장한 자태를 나타내지만 그 크기에 비해 단순한 창살문양을 사용하여 육중한 느낌을 간결한 이미지로 이끌어 주고 있다.

### ③ 덕홍전德弘殿

함홍전 서쪽에 있는 덕홍전은 일반 빈객賓客들을 접견하던 곳으로 편전과 같

은 구조를 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앞뒤로 뒷간을 두어 개방되어 있다. 정면, 좌우 측면과 정면 뒷간과 뒷 뒷간 모두 띠살細箭<도판 54>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교창으로 되어 있다.

#### ④ 석어당昔御堂

석어당은 궁궐 안의 유일한 2층 건물로, 아래층은 정면 8칸, 측면 3칸이고 위층은 정면 6칸, 측면 1칸인 건물이다. 행각이 있었으며 단청을 사용하지 않은 민가 형식의 건축물이다. 정면3칸은 대청으로 개방되어 있고 그 안에는 띠살細箭을 달았으며 좌우 측면2칸, 양 끝쪽 온돌방에는 머름위에 정자 살을 설치하였다. 후면 중앙과 뒷 뒷간은 띠살細箭<도판 55>로 되어 있고, 좌우 측면은 머름위에 정자살井字箭<도판 56>로 되어 있다. 2층에는 모두 머름 없이 정자살井字箭로 되어 있다.

민가형으로 지어진 석어당은 기본적인 단정한 느낌의 정자살과 띠살을 사용해 민가 주택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지만 외형의 모습은 궁의 전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규모에 있어 위엄감과 육중함이 있다.

#### ⑤ 측조당卽祚堂

측조당은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정면 동쪽으로부터 2, 3, 4번째 칸을 개방하여 뒷마루로 만들었다. 서쪽의 준명당과 2칸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정면 중앙 3칸에는 뒷간을 두고 그 안에는 띠살細箭을 달았으며 양 끝 2칸에는 머름위에 띠살細箭로 되어있다. 좌우측면 1칸씩은 정자살井字箭<도판 57>과 그 위에 交窓으로 되어 있으며 후면 중앙 3칸과 양쪽 온돌방은 띠살細箭<도판 58>로 되어 있다.

큰 기단을 갖추고 있어 기단의 높이만큼 위계가 느껴진다. 그러나 석어당과 같이 민가형 주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풍기는 이미지는 단정한 느낌의 한옥을 연상케 한다.

#### ⑥ 정관헌靜觀軒

정관헌은<도판 59, 60, 61> 고종 황제가 다과를 하며 쉬기도 하고 연회를 열기도 하는 휴식처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 팔작 지붕 등 동양적 요소가 있는 벽돌 단층 양옥인데 정면 7칸, 측면 5칸의 장방형 평면으로 기둥을 인조석 셋어 내기로 만들어 로마네스크식 주두가 있다.<sup>55)</sup> 그 뒤 전면과 측면 테라스에 정교한 아케이드를 만들어 증축한 것으로 전통 궁궐과는 다소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난간에는 십장생의 하나인 사슴과 소나무가 화려한 금색으로 되어 있어 전통 건축물과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난간 위쪽으로 단청에 쓰이는 색상으로 화병과 꽃무늬를 표현하여 한국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⑦ 석조전石造殿

석조전은<도판 62> 1910년에 완성되었으며 1층에는 시종인 들의 거실, 2층에 접견실을 두고, 3층에는 황제, 황후의 침실, 거실, 담화실, 욕실을 배치했다. 건물 외부에는 이오니아식 주두로 된 열주가 늘어서 있고 전면 중앙 현관의 상부 박공에는 황실 문장인 배꽃이 새겨져 있다. 궁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장인들에 의해 지어져야 할 중요한 건축을 영국인 브라운(sir. john Mclevy Brown)이 주도하여 건축을 시작하여 일본에서 온 재정 고문 메가다目駕田에 의해 완공되었다.<sup>56)</sup>이 석조전은 현재 궁중 유물 전시관으로 건물의 모습과 유물이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궁궐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우선 궁 안에 서양식 건물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전통적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55) 김순일 저 《덕수궁》 pp.108~110. 대원사. 2001. 서울

56) 홍순민 저 《우리 궁궐 이야기》 pp.203~204. 청년사. 2000. 서울

〈표-3〉 덕수궁德壽宮 창살 문양의 종류

	전 각	창살 문양 종류
덕 수 궁 德 壽 宮	중화전 中 和 殿	솥을빋꽃살, 빗살,
	함녕전 咸 寧 殿	細箭, 빗살
	덕홍전 德 弘 殿	細箭, 빗살
	석어당 昔 御 堂	細箭, 井字箭
	즉조당 卽 祚 堂	井字箭, 빗살, 細箭
	정관헌 靜 觀 軒	無

#### (4) 창경궁昌慶宮

창경궁은 일제 침략세력에 의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된 창경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으며 창경원이 되면서 정전인 명정전明政殿과 통명전通明殿, 환경전歡慶殿, 경춘전景春殿, 집복헌集福軒등 몇몇 건물이 남아 있을 뿐 철거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라 생각한다. 그 이후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궁에 있던 갖가지 짐승들을 서울대공원으로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있던 전각들을 일부 복원되면서 창경궁으로 이름을 되찾았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으며 전각 배치는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외전이 있고 후면에 내전이 놓이는 배치로 규범보다는 건물의 이용에 편리하게끔 놓여 있다. 또한 창덕궁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궁궐이었다. 옛 모습의 창경궁은 동궐도나 동궐도 형에도 부족해서 현존하는 전각들에서만 창호의 고찰이 가능하다.

##### ① 명정전明政殿

명정전은 서울의 궁궐 정전政殿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왕궁의 정전들은 남향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창경궁의 명정전만은 동향을 하고 있다.

정면 5칸과 측면 3칸으로 뒷면에는 별도로 한 칸 정도의 넓이의 통로가 있다.

좌우 뒷간에는 돌로 창호 아래를 쌓고 들어열개 솥을빚꽃살창호<도판 63>를 달았고 후면인 서측면과 좌우 협간에는 디딤돌을 놓아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어간과 좌우 협간에는 솥을 빚꽃살창호를 달고 상부에는 빚살교창<도판 64>을 달았다. 또한 남측면과 북측면 어간에는 디딤돌을 놓아 드나들 수 있게 하였고 솥을빚꽃살창호를 달고 상부에는 빚살교창을 달았다. 또한 좌우 뒷간에는 전돌로 하벽을 쌓고 똑같은 무늬로 설치하였다.

정전은 대개 위엄감을 나타내기 위해 2층으로 지어지는데 명전전은 단층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서 단층으로서도 훌륭히 위엄감과 육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솥을빚꽃살창호의 무늬는 다른 정전과는 달리 장인의 정신이 엿보이는 섬세함과 정교함이 묻어 나와 정전으로서 모습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문정전文政殿

왕이 정사를 살피던 편전으로 문정전은 일제가 철거한 것을 1986년에 복원하여 현재는 정면3칸, 측면3칸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통간으로 되어있다. 정면3칸과 후면 3칸 모두 두짝은 밖 여닫이로, 두짝은 들어열개 정자살井字箭창호를 달았고, 동서 측면의 어간에는 네 짝 밖 여닫이와 들어열개 정자살井字箭창호<도판 65>를 달았다.

문정전은 조선의 궁궐의 사라진 전각중 하나이다. 예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옛것을 되살려 세운 모습은 세월의 무게감이나 전통적인 조형적 아름다움은 크게 다가오지 못하였다.

## ③ 숭문당崇文堂

숭문당은 창경궁 건립 때에는 없었던 것으로, 임진왜란 뒤 광해군 때 창경궁을 중건하면서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면4칸, 측면3칸으로 집 가운데 대청이 있고 그 양옆에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3번째 칸은 대청이며, 그 옆은 온돌방이고 후면에는 뒷간마루가 있다. 제 1칸

의 뒷마루와 북측의 온돌방 정면에는 띠살細箭창을 달았으며 대청의 정면에는 띠살細箭창호와 빗살교창을 설치하였다. 후면인 대청의 서측면에는 정자살井字箭창호<도판 66>와 상부에는 정자살井字箭교창을 달았고 뒷간 좌우 칸에는 띠살細箭창호를 달았다. 남측면 3칸과 동·서쪽 뒷간에는 정자살井字箭창호를 달았고 상부에는 빗살교창을 달았다. 북측면 동 뒷간 어간에는 띠살細箭창호<도판 67>와 빗살교창을, 서쪽 뒷간에는 정자살井字箭창호를 달았다.

명정전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지형에 따라 뒷면은 단층으로 하고 전면은 방형의 돌을 세워 樓처럼 만들었으며 난간을 두고 누마루 양쪽에는 목조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 ④ 환경전 歡慶殿

환경전은 경춘전과 함께 내전을 구성하는 중요한 건물로 왕이 늘 거동했던 곳이기도 하며 왕의 정침으로 사용하였다.

정면7칸, 측면4칸으로 동향한 어간은 창호 없이 개방하였고, 좌우 협간과 좌우 뒷같은 정자살井字箭창호<도판 68>로 상부에는 정자살井字箭 교창<도판 69>으로 되어 있다. 북측면의 동서 뒷간에는 정자살井字箭창호를, 나머지 2칸에는 머름위에 띠살을 달았다. 남측면 좌우 뒷간에는 정자 살을 나머지 2칸에는 띠살細箭창호로 달았다. 서측면 어간과 남북측 협간, 뒷간에는 머름 없이 정자살井字箭창호를 설치하였다. 현재 내부는 통간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에는 좌우에 온돌방이 있었다고 한다.<sup>57)</sup>

#### ⑤ 경춘전 景春殿

경춘전은 통명전이 재건되기 이전엔 왕비의 정침으로 사용되었던 전각으로 건물의 구조나 세부기법 등은 환경전과 비슷하다. 정면6칸, 측면4칸으로 정면인 남측면 3번째 칸은 창호 없이 개방되어 있다. 그 안쪽에는 들어열개 띠살細箭창호를 달았고 상부에는 빗살교창이 있다. 동측면의 남쪽 뒷간, 두 협간과 북측 뒷간

57) 주남철 저 《한국의 문과 창호》 p.207. 대원사, 2001. 서울

에는 머름위로, 서측면 동뒷간 모두 띠살細箭창호<도판 70>로 되어있으며 상부에는 빗살교창이 있다. 중앙 협간2칸은 띠살細箭창호<도판 71>로, 대청과 온돌방 사이에는 정자살井字箭 불발기 창호를 설치하였고 그 속에 아자亞字 미단이 창과 갑창甲窓을 달았다. 또한 온돌방과 주변 뒷간 사이에는 머름위에 띠살細箭창호와 아자亞字미단이창, 갑창甲窓으로 되어있다.

#### ⑥ 양화당養和堂

통명전 동쪽에 위치한 양화당은 성종 15년(1484)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여러 번 소실된 후 현재의 모습은 순조34년(1834)에 중건한 그때의 건물이다.

정면6칸, 측면4칸으로 정면인 남면에는 월대를 두고, 중앙의 2칸은 개방된 뒷간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협간과 뒷간 앞에는 평난간을 두른 퇴를 두었다.

정면 뒷간 안쪽으로는 머름 위에 정자살井字箭을, 중앙 2칸에는 띠살細箭<도판 72>과 그 위에 빗살교창을 설치하고, 동측면과 서측면 뒷간, 후면 중앙2칸, 뒷간의 좌우 모두 머름위에 띠살細箭창호로 되어 있다. 후면 중앙 2칸에는 정면과 같이 개방된 마루가 있고, 전면 2칸에는 띠살細箭창호를 달았다. 좌우 협간과 뒷간에는 띠살細箭창호를, 안쪽에는 아자亞字미단이창으로 설치하였다. 내부의 대청과 좌우 큰 온돌방사이에는 불발기창호 속에 아자살亞字箭 미단이창호를 설치하였고, 큰 온돌방의 앞 뒤 뒷간 전면에는 띠살細箭창호 속에 아자살亞字箭창호를 달았다.

#### ⑦ 통명전通明殿

왕비의 정침으로 이곳의 여러 전각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단청의 수법 등이 화려하여 내전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전각이다.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8년(1616)에 중건하였던 것이 정조 14년(1790)에 다시 소실되어 순조34년(1934)에 중건되었다.<sup>58)</sup>

58) 홍대형 저 《한국의 건축문화재》 p.217. 기문당. 2001. 서울

정면 7칸, 측면 4칸의 단층으로 중앙에 정면3칸의 뒷간에는 개방된 마루로 되어있고, 측면2칸 등 총6칸인데 대청마루와 온돌방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중앙어간과 좌우 협간은 창호 없이 개방하였고 안쪽 3칸과 뒷간은 띠살細箭창호<도판 73>와 상부에 빗살교창을 달고, 정면과 후면의 좌우 뒷간과 협간에는 정자살井字箭창호를달고 위에 빗살교창을 설치하였다. 나머지 동쪽과 서쪽 협간에는 정자살井字箭 불발기창호<도판 74>를 , 서측 뒷간측면, 동측 뒷간과 협간모두 띠살細箭로 되어 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건물 정면의 모습은 웅장하고 육중하여 궁의 위엄감을 자아낸다. 창살은 다소 단순한 정자살과 띠살을 사용하여 경직된 느낌이 강하다.

〈표-4〉 창경궁昌慶宮 창살 문양의 종류

	전 각	창살 문양 종류
창 경 궁 昌 慶 宮	명정전 明 政 殿	숫을빋살꽃살, 빋살
	문정전 文 政 殿	井字箭
	숭문당 崇 文 堂	細箭, 빋살, 井字箭
	환경전 歡 慶 殿	井字, 細箭
	경춘전 景 春 殿	細箭, 빋살, 井字箭, 亞字箭
	양화당 養 和 堂	井字箭, 빋살, 亞字箭
	통명전 通 明 殿	細箭, 빋살, 井字箭

우리 나라 중요 궁궐인 4대궁 외에도 지금은 자취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라져 가는 경희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경희궁慶熙宮 은 서궐西闕 혹은 경덕궁慶德宮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궁궐로 서궐의 의미는 경북궁을 북궐, 창덕궁을 동궐이라 칭하듯이 경덕궁을 서궐이라 하는 것이다. 이궁의 이름은 원종의 시호인 경덕敬德과 동음同音이라 하여 이름을 경희궁으로 고쳤다. 경희궁은 현재 그 존재가 불분명하고 남아있는 전각 또한 여러 곳으로 이전되어 궁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전인 승정전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에 의해 조계사에 매각되어 그곳으로 옮겨져 조계사 본당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동국대학교 구내에 정각원으로 남아

있으며, 흥정당은 광운사로 이진 되었다고 하나 남아 있지 않으며 황학정은 사직단 뒤로 옮겨져 전통활쏘기의 장소로 쓰이고 있다.<sup>59)</sup> 또한 경희궁의 정문인 홍화문은 현재 신라호텔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경희궁은 궁궐의 자취를 잃어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다.

송정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내진이 3칸이고 사면에 뒷간이 있다. 어간은 사 분합문이 달려 있고 협간은 삼 분합문, 뒷간은 이 분합문으로 되어 있다.

황학정은 현재 우리의 전통 궁술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정면에서 보면 4칸 중 동쪽 1칸은 서쪽의 3칸보다 높은 초석에 다시 한 단 높은 누마루를 깔았으며 기둥사이의 창은 띠살細箭분합문을 달아 개방하였고, 내부는 마루로 되어 있다. 정자로서는 비교적 큰 규모로 정면 간수가 짝수로 되어 있고, 내부를 모두 마루로 한 점과 모든 창을 들어열개를 한 점등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외형이 나타난다.

## 2) 조선궁궐 창살문양의 유형 분석

각 궁궐의 창호를 정리해 보면, 소슬빛꽃살창은 景福宮(勤政殿), 昌德宮(仁政殿), 昌慶宮(明政殿), 德壽宮(中和殿)등 각 정전에서 볼 수 있다. 세모와 육모의 꽃살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찰의 꽃새김 무늬의 화려함과는 달리 장중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소슬빛꽃살 무늬는 정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의 문양으로 볼 수 있다.

정자살 창호는 창경궁 낙선재 전각, 덕수궁 석어당과 여러 행각의 채광 창에 사용되었으며 창경궁, 명정전 뒤 송문당에도 나타났는데, 특히 송문당에는 띠살細箭창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성격상으로 정자살井字箭만을 전체에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느낌의 띠살細箭창을 같이 사용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덕수궁의 즉조당, 준명당, 창경궁의 환경전 그리고 창경궁 문정전에서 볼 수 있다.

59) 홍대형 저 《한국의 건축문화재》 p.255. 기문당. 2001. 서울

띠살細箭창이 세련되게 나타난 곳은 창경궁의 영춘헌에서 볼 수 있다. 같은 궁에서 경춘전과 집복헌에서도 볼 수 있으며 경복궁 수정전, 집경당 천추전, 사정전 등 여러 전각에 나타난다.

아자살亞字箭과 완자살卍字箭은 창경궁 낙선재와 창덕궁 대조전 전각에서 볼 수 있으며 살창은 여러 전각의 통기공通氣孔으로서 교창에 많이 나타나 있다.

궁궐에서의 창이란 그 기능, 즉 통풍, 채광, 환기 및 방풍과 보온까지 모두가 중요하지만 건물 전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조형의장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생불사, 다부, 다복을 의미하고 간혹 주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sup>60)</sup>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궁궐의 전각에는 주로 띠살細箭과 빗살이 많이 사용되어 졌으며 주요 전각인 근정전, 인정전, 중화전, 명정전에는 솥을빚꽃살과 빗살교창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궐의 장엄함과 세련된 장식미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표-5〉 각 궁궐에 나타난 창살문양

	井字箭	細箭	亞字箭	솥을빚꽃살	빗살	用字箭	卍字箭
景福宮	○	○	○	○	○		○
昌德宮	○	○	○	○	○	○	○
德壽宮	○	○	○	○	○		
昌慶宮	○	○	○	○	○		

창덕궁은 경복궁과 함께 정치를 하던 곳이면서 외국 사신과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르던 곳으로 경복궁 못지 않은 중요한 궁궐이었다. 또한 후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 휴식을 취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창덕궁은 궁궐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았으며 정궁인 경복궁에 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살문양에서 또한 가장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60) 한국전통건축연구회 저 《한국전통건축-궁궐건축》 pp.292~293. 황토. 1997. 서울

있다.

대조전과 낙선재의 건물 자체에서 풍겨나는 우아함과 화려함을 완자창卍字窓살과 아자창亞字窓살과 같은 문양으로 그 모습을 한 층 더해주고 있다.

〈표-6〉 각 궁궐의 전각에 나타난 창살문양

		井字箭	細箭	亞字箭	숫을빛꽃살	빛살	用字箭	卍字箭
景福宮	勤政殿	○			○			
	思政殿		○					
	千秋殿	○	○			○		○
	康寧殿	○	○	○		○		○
	交泰殿	○	○	○		○		○
	慈慶殿		○	○		○		
昌德宮	仁政殿				○	○		
	宣政殿		○					
	大造殿		○	○		○		○
德壽宮	咸寧殿		○			○		
	德弘殿		○			○		
	中和殿				○	○		
昌慶宮	明政殿				○	○		
	文政殿	○						
	歡慶殿	○		○				
	慶春殿	○	○	○		○		
	通明殿	○	○			○		

아자살亞字箭이 주로 나타난 전각은 왕의 정침인 곳과 왕과 왕비의 정침인 곳에 사용된 창살로 아자살亞字箭은 주로 여성적인 공간에 사용된 점을 입증해 준다. 또한 용자살用字箭은 남성적 공간에 주로 사용되어 졌다. 이 창살은 4대 궁궐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양으로 이는 용자살用字箭 자체로는 살대의 느낌이 간결하고 최대한 간소화되어 있어 궁궐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나타내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빛살과 정자살井字箭은 대부분의 전각에서 보여지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모든 건축물에 무난하게 사용되어 졌음을 알게 해 주고, 빗살은 빗살교창으로 사용되어 통풍과 채광을 위한 기능성을 갖춘 창으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창호로 보여진다. 솥을빋꽃살은 중요 전각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문양 자체의 화려함과 궁궐의 웅장함에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이나 심지어 양반들의 건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표-7〉 각 궁궐의 堂과 亭에 나타난 창살문양

		井字箭	細箭	亞字箭	솥을빋꽃살	빗살	用字箭	卍字箭
景福宮	香遠亭		○					○
昌德宮	芙蓉亭	○	○			○		○
	熙政堂		○	○		○	○	
	暎和堂		○			○		
	演慶堂	○				○		○
德壽宮	昔御堂	○	○					
	卽祚堂	○	○			○		
昌慶宮	崇文堂	○	○			○		
	養和堂	○		○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亭’과 ‘堂’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경치와 건물 안에 빛과 통풍이 잘 되어야 하는 건축물로, 그렇기 때문에 정자살井字箭과 띠살細箭이 주로 사용되어져 있다. 정자살井字箭과 띠살細箭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와 세로가 나뉘져 있어 빛이 들어오는 폭이 크며, 주로 정면창호로 되어 있어 들어올게 창호로 쓰여져 주변의 경치를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화려함보다 안정감과 실용적인 곳에 주로 사용되어져 집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장소에 많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 4. 조선궁궐 창살문양의 조형미 분석 및 특징

### 1) 창살문양의 조형적 특징

건물을 이루는 것은 선과 선이 만나 면이 이루어지듯 기둥과 기둥이 만나 하나의 벽체를 만들고 창살과 창살이 만나 창문을 만들어 선적인 요소와 면적인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요소로 본다. 또한 모든 건축에서는 크기가 중요한데 이는 사는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일반인과 지배층을 구별지을 수 있도록 규모를 달리 하고 있다. 우리 나라 또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 1차적으로 건물의 크기를 선정하여 선적인 요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그 다음으로 빛과 규모로 건축에서 빛의 중요성과 우리의 건축에서는 빛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건물의 규모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건물에서 보여지는 통일과 균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외관상 건물의 중요한 요소로 이를 2차적인 요소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 전통 창살에서 보여지는 조형미의 특징을 발견하고 분석하였다.

#### (1) 선과 형

##### ① 선

점을 하나하나 촘촘히 이어 이것을 일직선상에 두면 선이 된다. 점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무한한 움직임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로서 수평선, 수직선, 사선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수평선은 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무한한 운동성을 지니고 있는 직선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고요하고 평화스러우며 침착하고 안정감을 준다. 수직선은 수평

선에 내적·외적으로 완전히 상반되어 이 선에 대해서 직각상태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위엄감과 엄중함, 긴장감 및 경직감을 준다. 또한 시선은 가볍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며, 수평선, 수직선에 비해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변화와 운동감을 느끼게 한다.<sup>61)</sup> 이러한 선들은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한 선으로 수직과 수평선이 만나 반복이 이루어지는 무수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우리 나라 창살에서 많이 나타난다.

창살문양은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곡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소수에 속하는 정도로 대부분이 직선이다. 여기에서의 직선은 수평선, 수직선, 사선을 말한다. 이런 각기 다른 선들은 창살문양에서 다소 경직된 느낌과 단조로움을 주지만 선은 굽고 가는 선에 의해 자율적 운동을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한 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정자살을 보면 수평선이 지나가면 바로 수직선과 만나 연관성을 가진다. 이처럼 창살의 모든 문양은 수평선, 수직선, 사선과 같은 선들이 연관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자살과 띠살에서 보여지는 수직·수평선은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나가다가 한 시점에서 만나 다시 뺏어나간다. 교차와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 창살은 무한한 움직임과 동시에 네모 반듯한 형태에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사선은 빗살에서만 이루어지는 선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선으로 정적인 느낌의 정자살과 띠살과는 달리 움직임을 가진 동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선의 규칙적인 반복은 밀도 있는 면을 형성하며 선과 선의 간격의 변화를 통해 면을 한층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선과 면이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 흐름과 선에 의한 면분할의 세련미는 시선을 이끌어 강한 리듬을 느끼게 해준다.<sup>62)</sup> 이와 같이 창살문양에서 선은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형적 역할은 매우

61) 김정재 저 《건축의장론》 pp.26~27에서 참조. 교문당. 2002. 서울

62) 신지영 <창살문양을 응용한 핸드백 디자인 연구: 창덕궁 창살문양을 중심으로> pp.27~28.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② 형

형이란 선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평면적 공간인 2차원적 영역을 뜻<sup>63)</sup>하며, 외형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각으로 지각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는 점이나 선 또는 면이나 원, 각, 삼각 등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단위형식으로 이것은 가장 간결하게 위치만을 나타내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점의 연장인 선과 면을 기본으로 하여 표현되어지는 문양의 형식으로 회화적인 표현요소가 배제된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인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시원적인 형태로 모든 문양의 기본형식이 되며 반드시 수학적인 법칙과 함께 생기고 가장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궁궐의 창살문양은 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함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살이 짜이는 모양에 따라 그 창살의 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직선에 의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창호가 있는 벽면에서 창틀이 나무로 된 경우에는 면 분할이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서 창살문양은 선과 면의 결합으로 구성되었는데, 면은 선이 변화 있게 배열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분할되었기 때문에 직선이 그려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흙으로 된 벽면과 창호의 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빛에 의해 변화되고 따뜻한 분위기와 안정감등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창살의 선적인 구성과 창호지와 벽체의 면적인 구성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선에 의해 만들어진 면들은 사각형이나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평면형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은 기하학적인 형태는 정사각형이고, 직사각형과 삼각형, 마름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창살에서 보여지는 형들은 일체의 장식성을 제거하고 극도로 단순화되어진 기하학적 형태로 매우 강한 질

---

63) 데이비드라우어 저,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p.178. 미진사. 1992. 서울

서를 갖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2) 빛과 규모

### ① 빛

건축 요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빛으로 빛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될 공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빛을 소중히 여기고 빛을 통해 조형을 만들어 낸 것이 ‘窓’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빛은 주거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남향의 집을 선호한다. 이는 햇빛의 중요성 때문이라 보여진다. 남향은 햇빛을 잘 받는다는 사실과 겨울에 남향의 집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느낀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난방이 없어도 따뜻한 온기가 들고 마루 깊숙이 들어오는 햇빛을 맞으면 마음 마저 충만해 짐을 느낄 수 있다. 실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리듬, 더 나아가 사색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빛은 매우 눈부시며 밝다. 이러한 빛은 창을 통해 들어와 마음을 다스리는 부드러운 빛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창호지와 창호의 위치, 크기 그리고 방향은 채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빛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이지만 이 빛이 여과 없이 수 시간 동안 계속 받는다면 오히려 피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키는 창호는 창호지에 강한 햇빛이 여과되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여기서 창살의 문양이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통해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방안으로 들어온 부드러운 빛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유의 세계의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사유의 잠기도록 할 수 있는 놀라운 빛은 한국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sup>64)</sup> 빛은 곧 자연이고, 이러한 자연주의 사상을 건축의 기본으로 삼아온 것

64) 김영기 저 《한국미의 이해》 pp.150~15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은 우리문화만이 갖는 고유한 자산이라 생각한다.

우리 나라 선비들의 생활 철학과 미적 감각은 구체적으로 실생활의 주거 공간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비의 실내 공간은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삼매경에 빠지기 위하여 마음의 안정을 제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빛이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매개체라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눈부신 빛을 좀더 실내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창을 크게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길게 내었으며 그 빛은 실내에 장식된 모든 조형물들을 화려하게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신 빛을 마음을 다스리는 부드러운 빛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유리보다 반투명의 창호의 기능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와 창호지라는 상호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빛은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푸근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는 곧 한국인의 '정'과 통한다고 본다.

빛을 통과시키는 창호지는 창살의 문양에 따라 그 형태가 조용히 나타난다. 이 때의 창살의 그림자는 생각의 세계로 인도하는 분위기를 창출 할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조형형태를 만들어 낸다.

우리가 조형미술을 논할 때 빛과 조형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조건이다. 형태는 빛에 의해 드러나며 빛은 형태의 표면을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조형성은 빛에 의해 나타나며 빛의 성질은 조형물에 의해 변화된다. 아무리 어지러운 것도 이 빛 가운데서는 조용한 빛 속으로 흡수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침전시키는 것은 창호지와 빛의 조화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적 조형미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창호지는 빛의 반투명 체로서 조형물을 흡수하지만 밖의 다양한 소리들을 걸러주는 반 투과 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낙수소리, 행랑채 밖의 매미소리, 까치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앞 내울의 물소리 등 자연음 들이 창호를 통해 건물 내에 투영된다.

창과 빛, 창과 창호지는 한국의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조형요소가

며 한국적 아름다움을 잘 말해주고 있다.

## ② 규모

규모는 기본적으로 크기를 일컫는 말<sup>65)</sup>로 우리 나라 건축의 건물들의 크기는 비교적 아담하며 낮은 건물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복궁 근정전이나 무량사 극락전 같이 웅장한 건물도 있지만 소수의 건물만 그렇고 대부분의 건물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아담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산등성이와 어울리는 모습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한다.

창살의 규모는 창호의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의 크기를 한국 사람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삼고 안정감을 고려한다. 방의 넓이나 천장 높이를 결정할 때에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신장 5척을 중심으로 하였다. 창외의 경우, 창의 기본 구조에서 그 설치기준을 인체에 두었다. 창은 머름대 위에 설치하고 두 짝 창을 달게된 창의 구조는 머름과 그 위에 세운 벽 선과 인방이 구조하는 윤곽에 의하여 완성된다.

창의 기본 구조에서 머름대 높이를 앉은 사람의 겨드랑이 아래에 들도록 하였다. 이것 또한 인체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앉았을 때 가슴팍이 닿을 정도의 높이이다. 머름의 높이는 약1.8척(약 54센티미터) 가량인데, 이 높이는 사람이 방바닥에 누웠을 때의 두께 0.9척(약27센티미터)의 두 배에 해당된다. 머름대의 높이는 문갑 등 실내 가구 제작에서 높이를 제한하는 절대 기준치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모두 인체와 연관된 것들로 볼 수 있다.

머름대가 있음으로 해서 방안에 앉은 이는 안정감을 얻는다. 머름대 높이가 앉은 사람의 겨드랑이 아래를 기준 삼은 것이라면 창 얼굴의 인방 높이는 서 있는 사람의 눈 높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치인 5척에 연관하여 창의 크기를 5.4척으로 하였다. 이는 평균 신장 5척에 인방 높이 0.4척이 합쳐진 크기로 창 얼굴 높이가 되었다.<sup>66)</sup> 이처럼 창살은 인체를 기

65) 데이비드라우어 저,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p.80. 미진사. 1992. 서울

66) 신영훈 저 《한옥의 조형》 pp.76~82에서 참조. 대원사. 1998. 서울

준으로 하여 아늑함과 안정감을 주는 치수로 창호에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창과 함께 문의 크기 또한 인체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일반 한옥에서 가장 큰문은 사람의 키 정도였고, 작은 문은 몸통 크기의 정사각형 문 정도였다. 이는 필요이상으로 문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 문지방까지 있어 문지방을 넘고 키보다 작은 문을 드나 들 때에는 고개를 숙이는 어려움이 있었다. 왜 이렇게 비실용적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그 이유를 짐작해는 “키보다 작은 문을 드나들면서 몸을 오그리고 수그릴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한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무엇보다도 문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은 몸의 크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문이 건물보다 작고 그 작은 문을 통과 할 수 있는 더 작은 신체를 가지고 있어 넓은 자연에 서있는 자신에 대해 자아 각성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며 이것은 곧 자신의 분수를 알게 만드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문을 크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연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에 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는데 그것보다 창의 기능에서 문의 기능으로 발전 변형되어 창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창호에서 문지방을 둠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팔을 올려놓는 편함을 위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방의 높이는 편리성과 창의로서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또 다른 견해로는 한국과 달리 서양은 유리창문이나 나무창문을 사용하여 추위를 막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는 창호지라는 종이로서만 추위를 막기 때문에 창을 크게 하면 그만큼 찬 기운이 방안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기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졌다는 견해와 전통 건축의 크기나 창의 크기, 방의 크기는 항상 자연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위해 아담하게 지어 졌다는 견해이다.

### (3) 통일과 균형

#### ① 통일

통일이란 여러 요소, 소재 또는 조건을 선택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완성체로 종합하는 것으로, 서로 무관한 것, 서로 제약하는 것, 서로 반대되는 것 등을 모순되지 않게 관계지어 하나의 전체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일된 이미지의 표현은 하나의 법칙성과 질서성의 체계, 조화와 일치를 뜻한다.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주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반복, 연속, 다양성을 지닌 통일성<sup>67)</sup>등으로 이는 디자인적 요소를 건축에 응용한 점을 궁궐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반복적 요소는 한 전각에서 창살문양을 여러 창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덕수궁의 석어당에서 보는 것처럼 정자살, 띠살, 정자살, 띠살로<도판 75> 반복되면서 전면과 후면을 이루고 있고 창경궁의 환경전<도판 76>에서도 좌우는 정자살로 중앙은 띠살로 되면서 정자살의 반복으로 통일성을 갖춘 하나의 전각이 됨을 알 수 있다.

연속은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덕수궁의 중화전, 창경궁의 명정전에서 솟을빔꽃살을 전면창호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시선을 자연스럽게 좌에서 우로 앞에서 뒤로 연결시킴을 알 수 있다.

---

67) 반복은 색깔이나 형태, 또는 텍스처나 방향, 각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연속은 말 그대로 '연속되는 것'으로 외곽선 또는 같은 형태와 같은 패턴이 연속으로 나열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길이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다양성을 지닌 통일성은 형태를 너무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면 보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보다 싫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형태는 반복되더라도 크기는 달라야 하며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통일감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데이비드라우어저,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p.82. 미진사. 1992. 서울

건축에서는 다양성을 지닌 통일성은 무늬가 동일하더라도 건축에 나타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손쉽게 변화와 통일성을 이룬다. 즉, 완자무늬는 창호의 살 짜임새 무늬로 또 실내에서 비치되는 가구의 장식무늬, 난간의 장식무늬와 굴뚝 담장의 장식무늬까지 사용되어 동일 주제의 반복으로 통일성을 보이며 반면 사용되어진 장소를 달리함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있다. 주남철 저 《한국 건축사》 p.10.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창살문양은 건축의 조형적 배경 속에서 하나 하나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지각되어 진다. 창살은 이들이 놓여있는 하나 하나로서가 아니라 건축의 모든 요소가 어울려 하나의 전체로서 지각되어지기 때문에, 외부공간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부분적인 요소들이 느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의 조화<sup>68)</sup> 있는 형태로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창살문양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에 의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문양의 반복적인 형태가 통일성을 이루어 내는 요소가 된다. 창살문양에서 느껴지는 전체의 구성이 통일성을 부여해주며, 질서감을 나타내고 있어 조용하고 차분하며 그 속에 위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반복에 의한 문양이 다소 지루함을 주지만 선의 간격과 미묘한 선의 굵기 변화에 따라 리듬감을 보여주며 면의 크기와 형태의 다양성 더불어 리듬감이 돋보인다.

## ② 균형

한 구조물에서 균형이란 모든 힘들이 평형이나 균형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무게 감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sup>69)</sup> 균형은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되는 쪽을 위하여 좌우가 같은 것을 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형상이나 위치 등이 축을 경계로 동일한 형태를 갖기도 한다. 이는 창살문양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궁궐의 창살문양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균형인 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창살문양은 구성상에서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에 같은 형태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반복과 대칭의 사용으로 완전한 균형과 평형감을 만들어 내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앞에서와 같이 우리 건축의 한 조형요소인 창살 문양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첫째, 우리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발생문화가 아니라 다른 나

68) 조화는 둘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이 상호관계에 대한 미적 가치판단으로 각 부분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로서의 각 요소가 종합적으로 감각적 효과를 발휘할 때 일어나는 미적 형상이다. 김정재 저 《건축의장론》 p.137. 교문당. 2002. 서울

69) 데이비드드라우어 저,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pp.57~58에서 참조. 미진사. 1992. 서울

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문화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외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둘째, 과거 우리 문화의 사상적인 지주였던 불교와 유교 및 무교는 한국인의 인생관을 소박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지리, 풍토적인 자연 조건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순박하게 만들었으며 여기서 우리나라의 생활감정 또한 순진하여 그 문양의 표현에 있어서 꾸밈에 있어 지나치지 않는 소박함이 묻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형적 특징을 지니며 살아온 조상들은 현대에 와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조형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 2) 창살문양의 조형미 분석

창살은 우리 건축의 내용 중에서 기하학적으로 잘 정리되어진 유일한 형태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조형적인 특성이 외부공간에서 보는 우리의 시각을 보다 완벽하게 다듬어 주고 거기서 한국적인 조형미를 더 돋보이게 한다. 창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형미 중에 자연과 동화된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자연미와 단순하면서 화려한 장식적인 미, 한국적인 인체크기에서 생겨난 비례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 (1) 자연미

한국의 미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 속에 내포되어 우리 민족의 의식에 깔려 있다. 과연 이러한 미의 특징은 무엇이며, 멋과 정취를 자아내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오 천년 역사 속에 베어있는 우리민족의 미의식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 깔려있는 우리만의 멋을 찾아내는 작업은 이 땅에 뿌리를 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이다.

한국의 조형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연의 미'라고 하는데,<sup>70)</sup> 자연은 자연 환경적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을 통해 오래 동안 쌓이고 만들어져 온 것이 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조형개념의 특성은 자연의 질서체계에 순응하고 조화하 려는 순수한 의도에 그 바탕이 있다고 하였다. “자연은 한국인의 삶의 자세에는 ‘자연의 사랑’과 ‘자연과의 조화’가 기저에 깔려 있으며 한국인에게 있어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생활 터전인 동시에 자양 공급체이고 그것은 만물의 돌아 가야 할 고향이다”<sup>71)</sup> 라고 조요한은 말하였다.

한국인의 삶에서 ‘자연과의 사랑’은 남북으로 중첩되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산줄기의 둥근 형태에서 오는 부드러움과 흙의 질감, 목조건축의 두께에서 오는 안정감과 투박함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려하는 성향에 있다 하겠다. 한국의 일반적인 조형성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경외하며 자연과 연속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였으며, 자연을 파손시켜가며 개발하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려는 태도를 가졌다.<sup>72)</sup> 즉 한 국의 건축은 자연을 주격으로 삼고 건축은 부격으로 삼는 점에서 서양건축의 계 획된 의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궁궐건축에서 자연의 지세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은 창덕궁으로 창덕궁 뒤에 자 리 잡은 후원은 북악산의 동쪽 산줄기를 따라 지어졌다. 야산과 계곡의 흐름을

---

70) ‘자연주의’, ‘자연미’는 김원용의 논문인 <한국미술의 특색과 그 형성> 1973 에서 “한국 고미술의 특색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 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 재현하려는 자 연주의요, 철저한 ‘我’의 배제이다. (중략) 이렇게 한국 고미술의 공통 특색은 결국 자연에 순응하는 조화, 평범하고 조용한 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무관심한 무아 무집(無我無執)의 철학이라 하겠다.”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 고미술> 1980 에 서 ‘자연주의’를 ‘이상주의’와 대비하여 ‘작가의 자연의 입장에 서서 자연현상의 하나 로서의 작품을 만들어내자는 것’을 자연주의라 하고, 이와는 반대로 제작의 기준을 작가의 정신적 이상에 두는 태도‘를 이상주의라고 하면서 한국미술은 인공을 회피하 는 자연에의 순응, 자연적인 것의 기호로서 특징 되는 자연주의라고 규정했다. 조요한 저 《한국미의 조명》 pp.312~313에서 재인용. 열화당. 1999. 서울

71) 조요한 저 《한국미의 조명》 pp.306. 열화당. 1999. 서울

72) 김경수 <건축미학에서 본 한국성 문제> 《미학·예술학 연구》 제13호. pp.94~95 에서 참조. 한국미학예술학회. 2001. 서울

파괴하지 않으며 필요한 곳만 손질하여 만든 정원이라 할 수 있다. 가운데 네모난 연못을 제외하고는 나무와 얇은 언덕 주변의 경관 모두 자연지세 그대로이다. 낮은 못이 있는 곳엔 부용정이 반대편 언덕 위에는 어수문과 주합루를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바라보는 주합루는 산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경관처럼 느껴진다.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어 자리를 만드는 일은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예라 여겨진다.

한국 건축은 그 바탕을 합리주의에 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추구되었으며 자연을 중요시하여 자연과 조화되고 심지어 그 자체 속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궁궐에서는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은 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의 공간이 넓고 그 넓은 대지를 이루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을 많이 설치하였으리라 추측한다. 나무결이 그대로 나타나는 기둥과, 창살은 자연의 나무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보다 자연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한국 건축에서 건물의 입면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창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양의 건축에서는 방의 기능에 관계없이 창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좌우대칭으로 균형 있게 하지만 한국의 건축은 창호가 설치되는 공간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함으로써 정면에 좌우대칭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용을 중시하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며, 나아가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극히 자연스러운 건축 방식이라 볼 수 있다.<sup>73)</sup>

또한 재료 면에 있어서 서까래나 기둥을 세우기 위한 나무를 고를 때에도 나무의 자연적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의 소나무는 구불구불하여 굽어진 형태는 굽어진 대로<도판 77> 옹이가 있는 부분은 옹이가 있는 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외에 기단을 쌓을 때 쓰이는 돌의 형태<도판 78>는 인공적인 느낌보다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4)</sup> 하지만 궁궐에서는 이러한 재료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73) 박경혜 <이조창살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문집》 제17집. pp.279~280에서 참조. 이화여자대학교, 1989. 서울

74) 돌은 나무와 달라서 재료 자체가 단단하고 크기와 모양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창살과 기둥, 자연지세를 따라 건축한 것은 이에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궁궐’은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과 잘 정리되어지고 정형화된 형태를 사용하여 위계와 질서를 이루고자 함이라 여겨진다.

집을 짓기 위한 터 또한 자연과 융화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조건에 맞게 지세를 맞추어 집을 짓게 되었다. 즉, 집 안쪽 울타리 바깥공간의 바닥이 가장 낮고, 다음 이보다 울타리 안 공간바닥이 높고, 뒤쪽 울타리 바깥공간 바닥이 가장 높다. 이것은 집안에서 울타리 너머 바깥 자연 공간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성격은 한국건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인 자연과의 융합성을 이루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를 이루는 요소는 창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창호가 ‘들어열개’라는 독특한 개폐 법으로 들쇠에 창을 매달면 인공적인 공간이 자연과 쉽게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벽체는 실내와 실외, 방과 방사이를 철저하게 경계를 두어 개방되지 않지만 한국 건축은 개방성과 폐쇄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자연의 변화와 질서에 유연하게 대처한 결과로 보인다. 모든 전각에서도 큰 창호를 들쇠에 매달 수 있도록 들어열개가 되어 있으며 온돌이 설치된 방에서만 미닫이 창호를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건축은 기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지보다 높이 있어 분리 된 듯하나, 창호를 들어열개의 개폐 법에 의하여, 모두 접어 들 쇠에 매달게 되면 시각적으로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은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의 지형은 뒤를 산으로 하고 앞은 냇물이 흐르는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안과 밖의 구분을 위해 둘러막은 담장에 살창을 달아, 대청마루에 앉아서, 살창을 통

---

있으며 따라서 거석 구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돌을 규칙적이거나 정형적으로 그리고 큰 크기로 사용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능가하거나 정복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에 3미터나 되는 큰돌들에서 주먹만 한 작은 돌까지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돌들을 불규칙적으로 상하 다양함과 변화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으며 소박하고 영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가공상태에서보다 미가공 상태에서 더 큰 숨은 질서를 느낄 수 있는 점이 한국 전통건축의 큰 특징이다. 임석재 저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pp.94~96에서 참조. 대원사. 1999. 서울

해 앞 내울의 물 흐르는 모양이나 소리를 듣게 한 것은 한국창호가 자연과 인공 공간을 융합시켜주는 매개체가 됨을 말해준다. 궁궐은 일반건축의 기단과는 다소 용도가 다지만 기단을 형성하여 위엄감과 위계감을 줄뿐만 아니라 자연의 경치를 느끼기 위함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훌륭한 자연과 벗삼아 함께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조용하며 인정이 많은 나라로 인식되어 졌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늘 같은 삶을 살아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자연과 동화됨에 있어 생겨났다고 본다.

한국미에 나타난 미적 가치는 ‘너그러움의 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너그러움은 자연을 닮는 것이다. 자연은 넉넉함으로 인간을 감싸서 품고 있다. 기질은 어둡이 없어서는 안 된다. 어둡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질이 인자함’이다. 마음이 너그럽다 함은 마음이 열리고, 서로 다른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 큰마음 즉 한마음이다. 서양의 미술은 ‘새로움’을 추구한다. ‘새로움’은 ‘새로운 형식’의 미술을 낳고, ‘새로움’을 뒤로한 채 또 새로운 형식 가치를 낳는 과정을 밟으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미술이란 변화보다는 자신이 머무는 ‘표현의장’에서 더 깊은 세계를 깨닫고 표현하기 위하여 ‘형식의도’ 혹은 ‘표현의 도’를 한결같이 걷는다.<sup>75)</sup>

이처럼 한국미는 너그러움과 어둡에서 우러나온다고 본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유교, 불교, 도교의 기본적인 너그러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sup>76)</sup> 이 너그러움은 비 완결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완결 이상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느끼게 해준다.

한국미의 너그러움과 어둡은 우리 나라의 산의 모습에 의해 연유되었다고 본

75) 김영기 저 《한국미의 이해》 pp.89~9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76) 불교는 현실에 가치를 두기보다 내세에 이루게 될 영적 완성에 목표를 두고, 유교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소유하려는 선비정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으며 욕심을 버리고 인격형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도교의 너그러움과 어둡의 경지에 이르는 마음이다. 박영순 외 저 《우리 옛집 이야기》 p.198. 열화당. 1998. 서울

다. 한국의 산은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완만한 곡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낮은 산의 모습과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건축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유 있고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심성에서 표출되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은 화려하지 않으며 소박함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건축은 자연을 중요시하며 자연에 조화되고 나아가 자연과 동화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바다 건너 중국과 같이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과 일본의 인위적인 형태와 다른 큰 차이점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동화된 삶과 여유 있는 삶을 통해 너그러운 마음과 어쭙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마음은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은 ‘산을 정복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연을 이기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전투적인 어감보다는 ‘산을 오른다.’ ‘산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정복’이라는 도전적 개념보다는 편히 쉬는 자연, 세속을 잊게 하는 자연으로 인간을 위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낮지만 좌우로 길고 넓게 펼쳐진 산의 풍경과 한 눈에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지만 오래도록 싫증나지 않으며 언제 보아도 정답고 편안한 한국의 전통건축은 한국적 조형미를 잘 보여준다. 전통 건축은 서양의 현란하면서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특별한 형태나 색채가 없이도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관찰하거나 음미해야만 인식되는 한국만의 아름다운 ‘美’라 본다.

## (2) 장식미

한국의 건축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창살은 정자살이나 용자살과 같이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하면서도 기

하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하지만 솟을 꽃창살이나 완자살, 아자살등은 화려하면서도 변화무쌍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반대로 화려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창살의 문양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일반 주택이나 궁궐에서는 창살문양에 색을 넣지 않고 나무의 자연스러운 색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창살문양으로서 건물의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 이는 창살문양의 모양이 통일감을 주면서 건물에서 느껴지는 육중함과 단조로운 느낌에 다양한 창살무늬를 넣어 다소 무거워 보이는 것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보여지게 한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덕수궁의 중화전, 창경궁의 명정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건물에서 느껴지는 위엄과 엄중함을 화려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솟을꽃창살을 사용하여 건물에 아름다운 조형적 장식미를 더해준다. 뿐만 아니라 아자살은 살대 자체문양만으로도 여성적인 느낌과 우아한 느낌인 동시에 다양하게 변화되어 장식의 효과를 나타낸다. 완자살은 변형이 자유로와 장식미의 효과를 한 층 더해주는데 창덕궁의 낙선재의 창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창살의 문양이 없고 단순한 창호지나 유리문, 혹은 판장문과 같은 장식이 없는 형태가 있었다면 보는 시각이 매우 달라 졌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창살문양은 문양자체로서의 장식성과 더불어 빛을 통해 들어오는 그림자의 형태도 실내에 충분히 장식적인 아름다움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빛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훌륭한 장식이 된다고 본다.

또한 창호는 일반적으로 창호지를 창호의 안쪽 면에 붙여 외적으로는 단순한 창살무늬와 안에서는 창호지만의 깨끗한 느낌과 단순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빛을 통해 드리워진 창살의 그림자는 방안의 생동감과 율동감을 느끼게 해 준다. 이것은 단순함뿐만 아니라 지루함을 없애주는 효과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 창살문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의 변화에 따라 방안을 장식해 준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창호와 호지법은 한국 건축내부공간에 있어 한국만의 독특한 공간정서를 이루어준다.<sup>77)</sup> 한국의 창호지

는 벽마감에 사용하는 종이로 닥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를 사용하였고 상류주택과 궁궐은 윤기 있고 질기며 질이 좋은 상아색의 한지가 이용되었다.

창살 중에는 단순하면서 변화를 주는 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음을 앞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장식적인 효과를 최고의 경지로 나타내는 창살의 종류로는 꽃살무늬라고 본다. 꽃살무늬는 사찰에 주로 사용되어지며 모양 자체만으로도 화려함의 극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장식이 된다. 일반적으로 나무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준 창살이 사용되지만 궁궐에 있어서는 창살에 녹색과 황색을 사용하여 그 변화를 주었다. 창경궁의 명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에 황색창살이 그 예이며 나머지 전각 중에서도 녹색창살을 볼 수 있었다. 색을 달리한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자칫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건물에 장식을 위해 사용되어 졌으리라 추측된다.

우리 나라 건축을 보면, 지붕을 무루선, 치마선, 기단의 수평들과 그리고 기둥, 도리들의 수직, 수평선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점차 접근함에 따라, 지붕 골들이 이루는 선들과 서까래 선들이 마지막으로 창호에서 완전한 장식을 이룬다고 본다. 즉, 창호지면에 강한 햇볕을 받아 창살의 그림자들이 나타나고, 또 이들 그림자들의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양새가 변화됨으로써 공간에 있어서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준다.

### (3) 비례미

인간은 오래 전부터 비례를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생각하여 왔다. 두 직선간의 비례, 면에서 이루어지는 변들간의 비례, 또 크기들 사이에도 비례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척도는 인간의 키와 비례하여 대단히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는 비례로 사용하였다. 기둥의 높이, 들보의 크기, 천장의 높이, 창살무늬의 간격과 비

---

77) 주남철 <한국전통창호의미> 《영대문화》 제14집. pp.108~109. 영남대학교. 1981. 경상북도

례 등 모든 척도가 인간의 키와 비례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일반 주택의 경우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마당에서 앞쪽에 서 있는 건물의 용마루를 볼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up>78)</sup> 하지만 궁궐은 다소 권위와 위엄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인 인간의 키의 비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의지를 표현하려는 조형행위의 본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형의 한 형태로 창살은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구성되었다. 곡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소수에 속하는 정도이고 직선이 대중을 이룬다고 한다. 여기의 직선은 수직, 수평사선을 포용한다. 창살은 크게 수직과 수평의 선이 교차되면서 구성된 형태, 수직과 수평 구조에 사선이 교차되어 이루어진 형태, 사선으로 구성된 형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창살의 선 모양의 대부분은 중앙을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균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비례란 부분과 전체간, 혹은 부분과 부분들간에 크거나 규모에 대한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비례를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형상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비례는 상대적인 크기 즉, 다른 요소들이나 어떤 정신적 규범 혹은 기준과 대비되는 크기를 뜻한다.

창살문양은 비례에 의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창호면의 공간과 살이 교차하며 이루는 면의 크기 사이의 비례는 서로서로 조화되고 대조되며, 부분과 전체 또는 부분과 부분 사이에 비례를 가지는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살문양은 반복되는 형상이 비례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선과 면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비례에 의해 직선으로 분할되어진 면으로써, 면비례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창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모티브는 장방형을 만드는 비례로  $\sqrt{2}$ 의 장방형,  $\sqrt{3}$ 의 장방형,  $\sqrt{4}$ 의 장방형,  $\sqrt{5}$ 의 장방형의 분할법이다.<sup>79)</sup> 이 비례는 적극적이고

78) 주남철 저 《한국건축사》 p.9.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79) 김채화 <한국 고건축 창호에 나타난 진자문의 조형적 비례 연구> pp.35~37.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 특히 비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보기에 좋은 면의 분할 또는 선의 분할은 한 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통일과 변화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내느냐에 있다고 할 때 하나의 창살문양에 있어서 선의 반복 횟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선적 배열 등 공간적으로 그 비례가 뛰어난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분할되어진 각 부분들은 형태와 크기가 대조될 지는 모르지만 서로 관련을 가지고 본래의 면과 관계되고 있다고 본다. 비례가 잘 이루어진 건축은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을 이루고, 선과 선이 만나 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끄집어 낸 우리 선조들의 조형적 미감은 유럽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예를 들어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의 화면을 분해하는 형태보다 훨씬 앞선 것이라고 보며 이는 이미 현대적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서양의 건축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한국의 전통 건축은 정교하면서도 자연스럽고 화려하면서도 수수하다. 이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보면 세련된 느낌과 잘 조각되어진 서양의 건축물과는 틀리지만 한국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감과 따뜻함이 배어있다고 본다.

반면 서양의 건축은 자연스러움보다 회화적으로 표현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창이나 벽을 조각이나 화려한 무늬로 꾸며 오히려 건축자체에서는 창과 벽과 같은 부속물들이 화려하고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재의 역할보다 주제가 된 것처럼 보여진다. 우리 나라 건축의 창은 건물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며 너무 독단적으로 튀지 않으며 화려하지도 않고, 기능적인 측면인 통풍과 채광을 위한 역할 또한 훌륭히 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연구한 자연미, 장식미, 비례미 뿐만 아니라 한국적 조형의 세계는 평범한 가운데 숨겨진 질서의 미, 특출함이 없는 평이함의 미, 절제된 형과 화려하지 않은 색, 간결한 선의 통일에 의한 구성미, 인위를 거부한 소박한 미, 자연에 의 신뢰에서 나온 소박미 등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면 소박미는 한국인들의 욕심 없고 자신을 드러

내기보다 조용히 겸허한 마음에 비롯되는 것으로 평범하면서도 생각의 깊이를 간직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지나치게 크게 짓거나 화려함 없이 그렇다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거나 눈에 띄게 세련된 모양을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전통건축에서 잘 나타나는 자연미와 소박미의 특징을 잘 말 해 주고 있다.<sup>80)</sup>

이모든 한국적 조형미는 사물에 내재하는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만 한 단계 앞서 성숙한 내면의 미로 불교사상의 무아(無我) 유교사상의 선비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심이 없고 겸허한 마음에서 형성되어야 가능하며 화려하거나 들떠 있지 않은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정신적 차원의 세계에서 비롯된 조형적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

80) 김경수 〈건축미학에서 본 한국성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제13호. pp.98~99. 한국미학예술학회. 2001. 서울

## 5. 결론

### 1) 조선조 창살문양 연구 종합

창살은 우리 건축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조형적인 특성이 보는 사람의 시각을 완벽하게 다듬어 주고 있어 더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선적인 구성이지만 회화적인 특징이 강하고 문양의 설명에 있어서 도안화되어 보이지만 추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형적 요소를 이루고 그 안에 조형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건축 공간에서 창살 문양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창호의 문양의 일반적 형태로는 간단하고 기초적인 날살과 띠살, 정자살, 용자살 등이 있으며 더 복잡한 형태로는 완자살, 아자살, 빗살, 솟을빗살 등이 있다.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한국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미라 할 수 있다. 이는 건축에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건물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에서도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자연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창을 설치하면서 안과 밖을 분리한다는 의미보다 사람의 보호기능의 역할을 하며 또한 ‘들어열개’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창이 불필요할 때 들쇠에 매달아 올림으로써 자연과의 하나 됨을 강조한다.

둘째, 창살의 기본적인 구성은 수평선, 수직선, 사선이 교차되어 통일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이들 사이에 비례미를 발견할 수 있다. 궁궐은 사찰과 민가보다 창호부의 상호간의 규칙적인 비례감을 나타내며 위계가 높은 건물일수록 규칙적인 비례가 보인다. 문자로 형성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다양한 변화를 통해 건축물에서의 장식적인 효과를 훌륭히 해내고 있다.

살대가 서로 만나 이루어내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빛이 주는 효과의 서정성 문양이 뜻하는 의미 등은 그 속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연의 미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창살은 목재가 지닌 재질감, 부드러움, 고요함, 은은함, 따뜻함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양식은 외면에 풍기는 고상함과 궁궐을 감히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위엄이 보여진다.

넷째,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전각에 따라 창살무늬를 다르게 사용하였는데 남성의 공간에서는 남성적인 느낌의 강하고 굵은 선인 용자살을 사용하였고 여성의 공간에서는 여성적 느낌이 강한 정교하면서 아름다운 아자살 무늬를 보여준다. 위계가 높은 건물일수록 의장적인 측면에서 보다 장중하고 화려함이 있는 외관이 요구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전의 솟을 빗꽃살에서 나타난다.

가장 기초적인 요소에서부터 건물이 완성된 후의 아름다움까지 훌륭하게 이뤄낸 한국의 궁궐은 소중한 문화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승 보전해야 될 임무라 여겨진다.

## 2) 현대적 의의

앞서 연구한 창살문양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살문양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공간으로 우리의 희로애락이 묻혀 있는 가옥의 일부로서 한국의 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살은 단순한 건축의 한 부분이 아닌 문양에 따른 각각의 의미와 그 내면에 종교적 가르침, 선조들의 지혜를 부여함에 따라 정신적 승화에 의해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합리적 사고와 현대적 감각에 따른 기하학적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화와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반응하게 하는 목적으로 단순화되며 간결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창살문양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되 복잡한 형태보다는 다소 간결한 문양

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통 창살문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사용한다면 현대적인 면 분할로 인해 전통적인 형태를 잃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하학적 형태의 창살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한국의 전통창살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전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속의 원리와 같이 과거에서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창조되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점점 국제화 되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올바르게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국제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것을 되찾고 살리기에 너무 깊숙이 우리문화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외국의 것을 선호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 본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이 모든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살문양을 응용한 복식, 스카프 및 장신구, 가구 등에서 옛 것을 살려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미술분야에서도 창살의 형태와 같은 기하학적인 구성이 일반 조형예술뿐만 아니라 건축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 변형하고 종합하여 다양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전통 건축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 정신이나 아름다운 조형적 미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창틀의 색을 나무결 무늬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서양에서 들어온 아파트 마루에 나무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창이 유리에 격자무늬나 정자살과 같은 무늬를 넣어 깔끔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서 한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정신을 알리고, 그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적 미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고유섭 저 《한국건축 미술사 초고》 대원사. 1999. 서울
- 김동욱 저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서울
- 김성기 저 《한국의 전통문화》 월간. 2001. 서울
- 김순일 저 《덕수궁》 대원사. 2001. 서울
- 김승찬 외 저 《한국의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삼영사. 2001. 서울
- 김영기 저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 김정재 저 《건축의장론》 교문당. 2002. 서울
- 김정기 저 《한국 목조 건축》 일지사. 1982. 서울
- 데이비드라우어 저,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92. 서울
- 리여성 저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한국문화사. 1956. 평양시
- 문영빈 저 《창경궁》 대원사. 1998. 서울
- 박영순 저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서울
- 신영훈 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현암사. 2000. 서울
- \_\_\_\_\_ 저 《조선의 궁궐》 조선일보사. 2000. 서울
- 이강근 저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7. 서울
- 임석재 저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서울
- 임영정 저 《한국의 전통문화》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서울
- 장기인 저 《한국 建築 大系 : I》 보성각. 2000. 서울
- 장순용 저 《창덕궁》 대원사. 1997. 서울
- 조요한 저 《韓國美의 照明》 열화당. 1999. 서울
- 주남철 저 《韓國建築美》 일지사. 1975. 서울
- \_\_\_\_\_ 저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서울
- \_\_\_\_\_ 저 《비원》 대원사. 1997. 서울
- \_\_\_\_\_ 저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서울

- \_\_\_\_\_ 저 《韓國建築美-제2판》 일지사. 1995. 서울
- \_\_\_\_\_ 저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2000. 서울
- 차용준 저 《전통문화의 이해-제3권》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전주
- 한국전통건축연구회 저 《韓國傳統建築-宮闕建築》 황토. 1997. 서울
- 한국건축분과위원회 저 《요해 한국미술사》 공간예술사. 1991. 충청남도
- 허 균 저 《傳統 紋樣》 대원사. 1997. 서울
- \_\_\_\_\_ 저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001. 서울
- \_\_\_\_\_ 저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2001. 서울
- 홍대형 저 《한국의 건축문화재 1(서울편)》 기문당. 2001. 서울
- 홍순민 저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2000. 서울

## 학술지

- 김경수 <건축미학에서 본 한국성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제13호. 한국미학예술학회. 2001. 서울
- 김동욱 <17世紀 朝鮮朝 宮闕 內殿建物の 室内構成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8호. 대한건축학회. 1992. 서울
- 김영문·최기수 <朝鮮時代 宮闕空間의 觀念的 構成에 關한 研究> 《한국 조경학회지》 제68호. 조경학회. 1998. 서울
- 김석환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5)> 《건축사》 제387호. 대한건축사협회. 2001. 서울
- \_\_\_\_\_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6)> 《건축사》 제388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 박경혜 <이조 창살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논문집》 제17집. 이화여자대학교. 1989. 서울
- 송민구 <우리 나라 옛 조형의 의미(1)> 《건축사》 제178호. 대한건축사협회. 1984. 서울
- \_\_\_\_\_ <우리 나라 옛 조형의 의미(3)> 《건축사》 제180호. 대한건축사협회. 1984. 서울

- 주남철 <韓國建築의 美-흐름과 특징> 《국회보》 제180호. 국회. 1981. 서울
- \_\_\_\_\_ <韓國傳統窓戶의 美> 《영대문화》 제14집. 영남대학교. 1981. 경상북도
- \_\_\_\_\_ <한국창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19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서울
- 진상철·최기수 <朝鮮朝 宮闕造景樣式에 나타난 儒家·道家的 思想> 《한국조형학회지》 제56호. 조경학회. 1995.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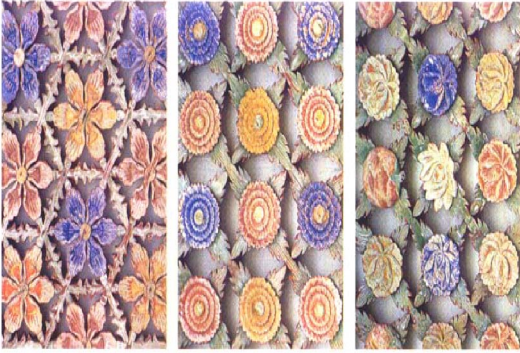
## 학위논문

- 김미애 <조선시대 창살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미영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 연구: 한국인의 조형의식을 바탕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영중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정목 <창살문양을 이용한 장식장 연구> 한남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지연 <韓國, 中國, 日本의 傳統창살 비교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현정 <한국 창살문양의 현대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신중찬 <寺刹 窓戶에 나타난 문살 문양 연구: 꽃살문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지영 <창살문양을 응용한 핸드백 디자인 연구: 昌德宮 창살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지영 <창살 문양을 이용한 가구 작품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기석 <컴퓨터그래픽스를 통한 전통문양의 기하학적 재구성> 조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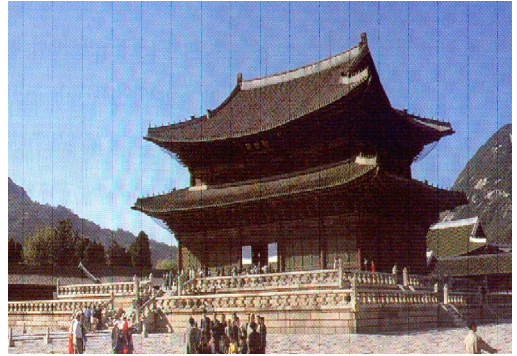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정아영 〈韓國 古建築의 조형미를 응용한 장신구 연구: 기와 및 꽃창살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정은 〈한국 고건축 창살의 조형화-게스탈트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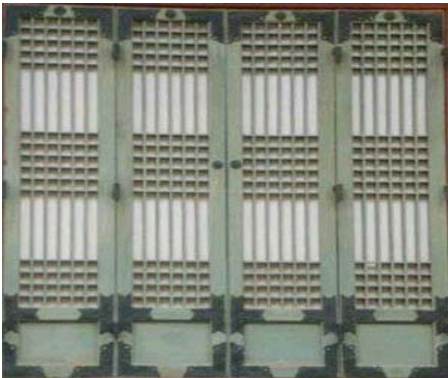
## 참 고 도 판



<도판-16> 쌍계사 대웅진 꽃살



<도판-17> 「景福宮 勤政殿」 솟을빗꽃살  
국보223호, 태조4년 1395년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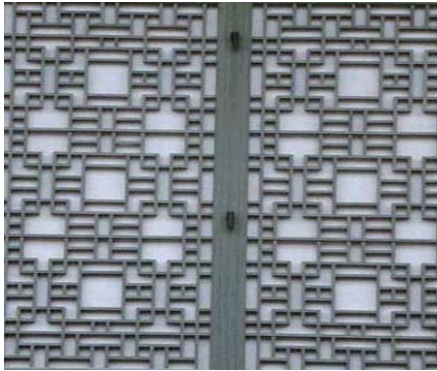
<도판-18> 「景福宮 思政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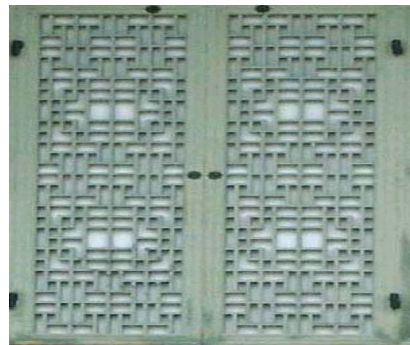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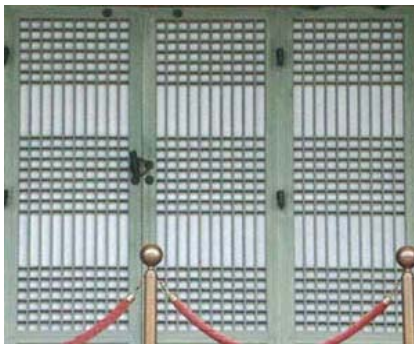
<도판-19> 「景福宮 萬春殿」 細箭  
細箭 고종4년 1867년 조성  
고종3년 1866조성, 1988년 복원



<도판-20> 「景福宮 千秋殿」  
細箭, 고종2년 1865년 조성



<도판-21> 「景福宮 康寧殿」亞字箭, <도판-22> 「景福宮 康寧殿」細箭  
 고종2년 1865년 중건, 1996년 복원



<도판-23> 「景福宮 交泰殿」細箭 <도판-24> 「景福宮 交泰殿」亞字箭  
 고종2년 1865년 중건 1996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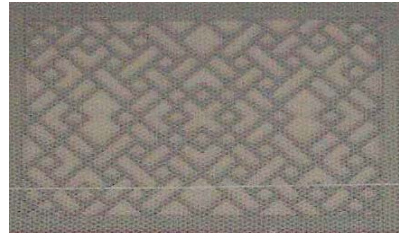
<도판-25> 「景福宮 欽敬閣」細箭



<도판-26> 「景福宮 慈慶殿」細箭 보물809호  
 고종2년 1865년 조성, 고종25년 1888년 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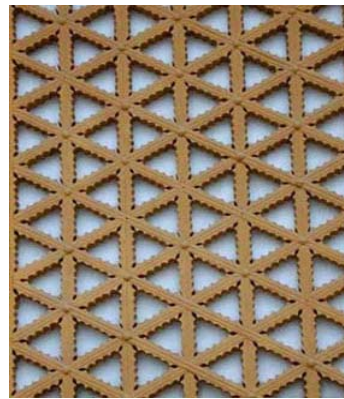
<도판-27> 「景福宮 慶會樓」진경, 국보224호,  
태종12년 1412년 창건, 고종4년 1867년 증건



<도판-28> 「景福宮 慶會樓」卍字箭 交窓



<도판-29> 「景福宮 香遠亭」亞字箭,  
고종4년~10년 추정, 1953년 복원



<도판-30> 「昌德宮 仁政殿」숫을빋꽃살,  
국보225호, 태종5년 1405년 창건  
순조4년 1804년 증건



<도판-31> 「昌德宮 宣政殿」細箭,  
세조7년 1461년 창건, 인조25년 1647년 증건



<도판-32> 「昌德宮 熙政堂」卍字箭 보물815호,  
연산군2년 1496년 개칭 1920년 복원



<도판-33> 「昌德宮 熙政堂」卍字箭 교창



<도판-34, 35> 「昌德宮 大造殿」卍字箭,  
卍字箭 交窓, 보물816호, 1920년 중건



<도판-36> 「昌德宮 大造殿」細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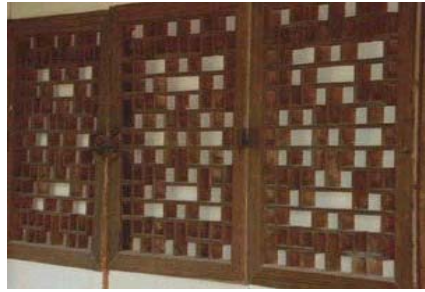
<도판-37> 「昌德宮 芙蓉亭」빗살  
숙종33년 1707년 창건, 정조연간 중건



<도판-38> 「昌德宮 芙蓉亭」  
細箭



<도판-39> 「昌德宮 宙合樓」 전경  
정조 즉위년 17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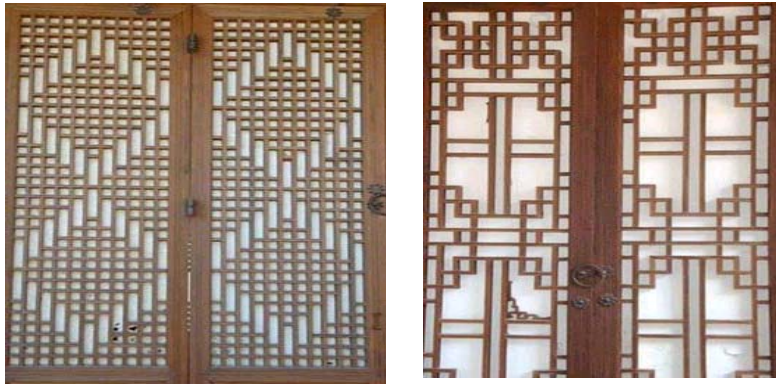
<도판-40> 「昌德宮 映花堂」  
군字箭불발기, 숙종18년 16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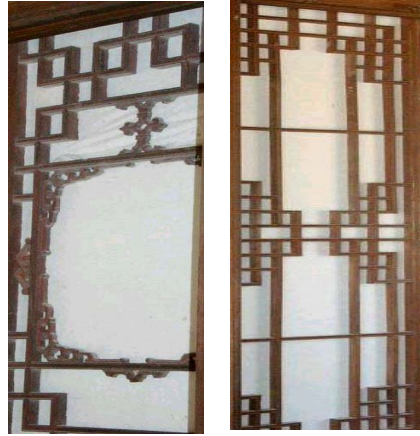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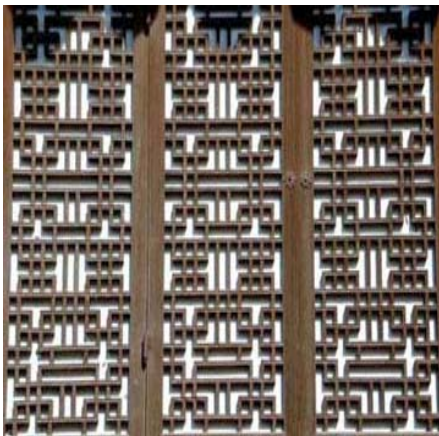
<도판-41, 42> 「昌德宮 演慶堂」 군字箭, 井字箭 순조28년 18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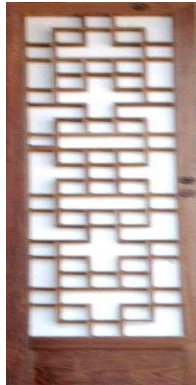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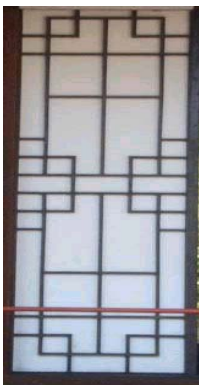
<도판-43> 「昌德宮 演慶堂」  
빗살 불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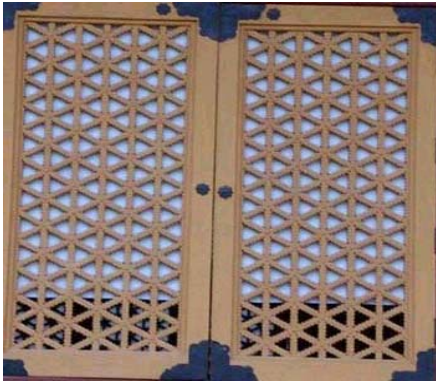
<도판-44, 45> 「昌德宮 樂善齋」井字箭 변형, 卍字箭 변형  
 현종13년 1847년 창건, 1996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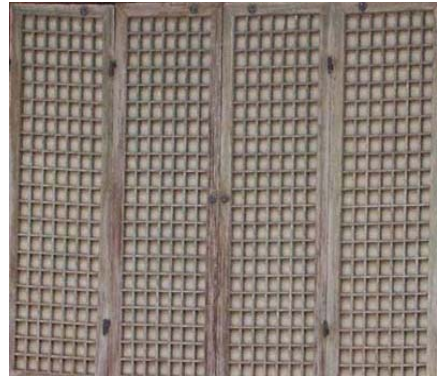
<도판-46> 「昌德宮 樂善齋」卍字箭 변형 <도판-47,48> 「昌德宮 樂善齋」卍字箭 변형



<도판-49, 50> 「昌德宮 惜福軒」卍字箭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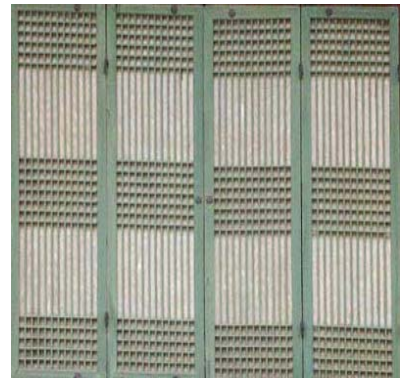
<도판-51> 「德壽宮 中和殿」 솥을빗꽃살  
보물819호, 대일제국 광무6년 1902년 창건



<도판-52> 「德壽宮 威寧殿」井字箭  
보물820호, 대한제국 광무1년 1897년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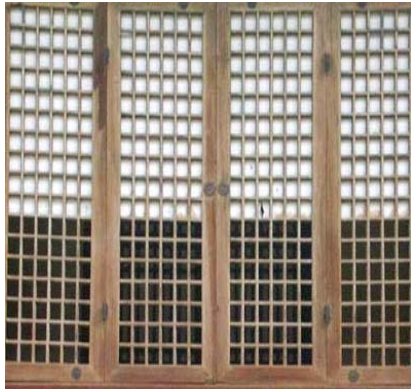
<도판-53> 「德壽宮 威寧殿」細箭



<도판-54> 「德壽宮 德弘殿」細箭,  
1906년 창건, 1911년 개조



<도판-55, 56> 「德壽宮  
昔御堂」細箭, 井字箭  
1904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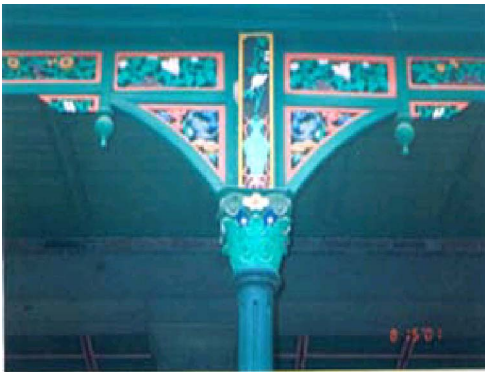
<도판-57, 58> 「德壽宮 卽祚堂」井字箭, 細箭 1904년 조성



<도판-59> 「德壽宮 靜觀軒」  
전경, 1900년 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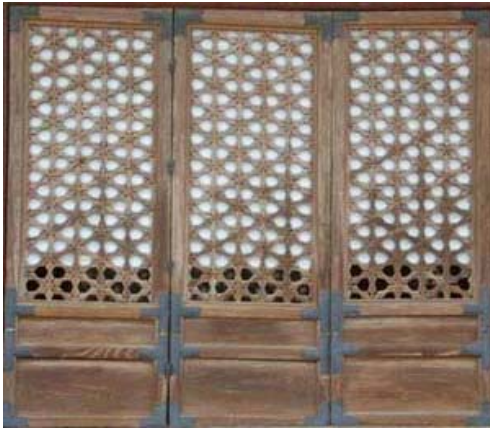
<도판-60> 「德壽宮 靜觀軒」 난간



<도판-61> 「德壽宮 靜觀軒」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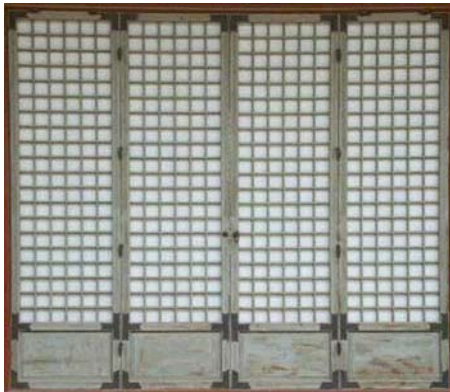
<도판-62> 「德壽宮 石造殿」 전경, 1909년  
창건



<도판-63> 「昌慶宮 明政殿」숯을빛꽃살, 국보226호,  
성종14년 1483년 창건, 광해군 8년 1616년 중건



<도판-64> 「昌慶宮 明政殿」빛살 交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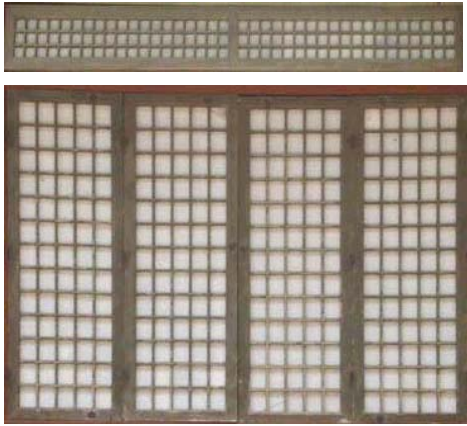
<도판-65> 「昌慶宮 文政殿」  
井字箭, 1986년 창건



<도판-66> 「昌慶宮 崇文堂」  
井字箭



<도판-67> 「昌慶宮 崇文堂」  
細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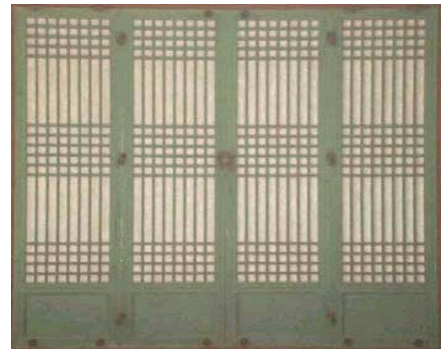
<도판-68, 69> 「昌慶宮 歡慶殿」井字箭交窓  
井字箭, 성종15년 1484년 창건, 1824년 복원



<도판-70> 「昌慶宮 景春殿」細箭 성종  
14년 1483년 창건, 순조34년1834년 중건



<도판-71> 「昌慶宮 景春殿」細箭



<도판-72> 「昌慶宮 養和堂」細箭,  
성종15년 1484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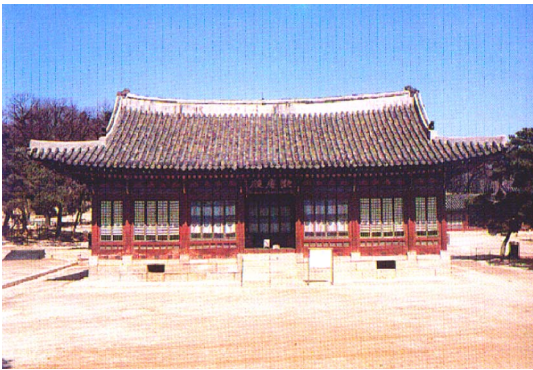
<도판-73> 「昌慶宮 通明殿」細箭  
보물818호, 성종15년 1484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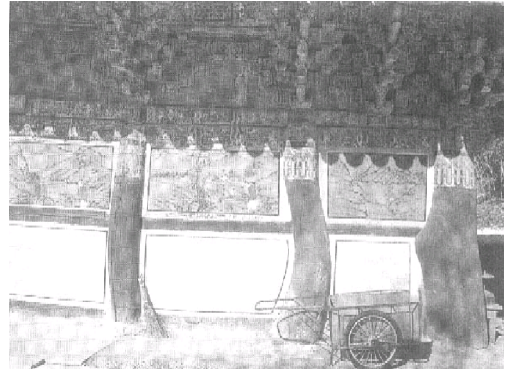
<도판-74> 「昌慶宮 通明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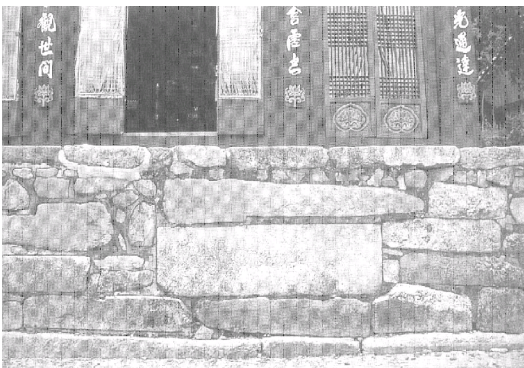
<도판-75> 「德壽宮 昔御堂」 전경  
1904년 조성



<도판-76> 「昌慶宮 歡慶殿」 전경  
성종15년 1484년 창건, 순조34년 1834년 복원



<도판-77> 안성 청룡사 대웅전



<도판-78> 공주 갑사 대웅전 기단

# ABSTRACT

## A Study on Formative Beauty of the Palace Latticework Design in Chosun Dynasty

Kim, Ho Jung  
Major in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Almost the whole of the front of the old Korean architecture was made up of windows and doors decorated with various patterns.

Windows and doors were mainly designed for creating openings for people to enter and leave the building as well as for letting in light or fresh air. Besides, it has been used as a means of decorating the building itself. A latticework is a structure allowing people to enter the interior space from the outside, which is fit into the frame of the windows and doors.

A latticework first appeared after the Neolithic age, and became fully developed after the Chosun Dynasty.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e including the palace in Chosun Dynasty was made based on the traditional view of geography conforming to Confucian ideas and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and the pattern of the latticework became vari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building itself.

The design of the four largest palaces' latticework had diversified patterns in appearance. The 'Jeongjon', or the main mansion of the

royal palace adopted 'Soslkotbisal', or a tall pattern of the teeth of a comb decorated with a flower, providing a look of splendor and dignity, while 'Jeongjasal' or network lattice, and 'Tisal', or horizontally striped lattice as well as 'Bisal', or the comb teeth pattern were used in most of the mansions in the palace. A straight line would create an impression of stiffness and boredom. However it created a sense of seriousness. For this reason a straight line was much used in designing a latticework to represent a hierarchy of the mansions of the royal palace. Because the palace is usually a very large building, much larger than a ordinary house, it needed a large window on the front to let in more of the light.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emphasized harmony with nature, which became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building's formative beauty. Traditional building styles in Korea were based on its topographical features, making use of the round shape of the mountains in Korea or the physical aspect of the natural surrounding as seen in a rear garden at Changdok Palace.

Continuity with nature was secured by installing 'Duroyogae', or a lift-and-open type windows and doors, turning the house into oneness with nature. This is a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architecture creating harmony with nature, which was not discovered among the Western architecture and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caused the Korean architecture to be harmoniously united with nature.

The shadows of the lattice cast by it in the light coming in through the window, form a beautiful pattern of formative beauty. The sound of nature that can be heard through the window paper, along with the shadows of the lattice in the room, is a typical feature

of Korean formative beauty that makes people feel warm and comfortable.

The pattern of the latticework of the window is designed based on the lines of lattice put together in proportion distribution, and for this reason the latticework creates uniformity and harmony, which in turn forms proportional beauty. In this way windows and doors as well as the lattice of each window are arranged in proportion to one another. Besides a latticework decorates the windows and doors by turning the massive and dull appearance of them into a more attractive look.

Both 'Atcha' lattice, or rectangular lattice and 'Mantcha' lattice, or swastika lattice are more often used in a variety of beautiful patterns rather than a simple pattern that represents various themes, tastefully decorating the lattice.

As discussed above, it may be worthwhile to cherish and develop the Korean cultural traditions by understanding the formative value and beauty found in the traditional latticework and further developing it into an art.